

Good Morning
ASIA

2014 **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
인천**



&

2014 **3**



우리집 화관^{花冠} 대문

아버지는 겨우내 치박아 두었던 모종삽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꽃씨뿐 아니라 반찬거리 채소 씨앗도 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뭇 심을 짜투리 땅 한 뼨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시선이 대문 위로 쏘였습니다.
올봄, 우리집 대문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은
꽃향기를 진하게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동구 송림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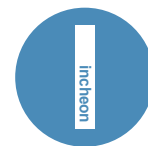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Taste 인천 누들로드

14 스페셜 백범 김구와 인천

20 글로벌 인천 교육도시의 허브로

24 포커스 외국 유명대학이 온다

26 Culture Info 더 이상의 사증주는 없다!

28 내 길 내 일 50여 년 철공소 외길 길철근 사장

30 K리그 클래식 개막 승리, 그 이상의 감동!

31 그린 인천 5R 운동

32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34 News Brief 올해 경제성장률 2.7% 전망 외

38 이달의 서평 시간... 먼지되어 날다 외

39 모닝커피 한잔 300년 고택, 오랜 시간 기와에 누워

40 생활정보 경증치매 돌봄 서비스 어르신 모집 외

인천십사년 삼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3

contents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라오스

49. 에티켓
명함교환 예절

50. Asiad News
선학체육관 · 하키경기장 개장 외

52. 줌 인
인천AG 공식 숙박업소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네팔

58. 하나되는 아시아
마음을 나누는 여행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표지이야기

▶ 만물이 소생하는 봄, 대지가 힘차게 약동하며 새싹을 피우고 대학 새내기들은 낭만과 희망을 꿈꾸며 캠퍼스를 누빈다. 젊음은 달뜬 봄과 닮았고 인천의 미래도 푸른 내일로 힘차게 달리리라, 사진은 인하대학교 캠퍼스.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40억 아시아인들이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은 라오스의 루알프라방.

@Bulloger

시민께서 인천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홍보가 부족한 듯해요.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면 어떨까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회 홍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께서 보내 준 소중한 의견을 담당부서로 전달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도로는 언제 개통하나요?

반갑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시설계획과(440-4122)에 확인한 결과, 금년 9월 7일 준공 예정이며 공사를 조기 종료하면 그 이전에 임시개통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송도 트라이볼과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및 G타워 경관조명과 센트럴파크 가로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관 조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트라이볼(760-1014), 포스코건설 사옥(1588-3633), G타워(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사업지원담당 453-7962), 센트럴파크공원(공원녹지과 453-725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선사박물관에 유물이 빈약하여 방문객이 적습니다. 현재 박물관 2층에 있는 작은 책방을 도서관으로 확장하는 게 시민들에게 좋을 듯하여 의견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께서 건의한 내용을 검단선사박물관 담당자(440-6796)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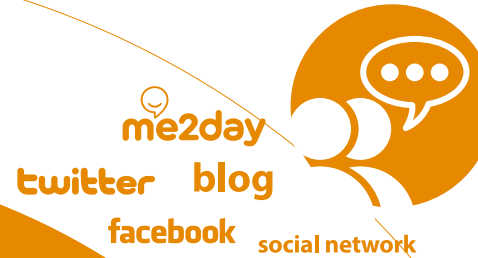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천의 성장사는 곧 나의 성장사

독자 최지혜(34, 계양구 효성동)



인천에서 나고 자라 30년이 넘는 세월을 인천과 함께해 온 최지혜 님. 계양구 효성동 '삼 형제 엄마'로도 유명한 그녀에게 인천은 늘 기대와 설렘의 도시입니다. 자신이 밟아왔던 이 땅을 이제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발맞춰 걸으며 더 큰 희망을 키워나갈 테니까요.

내게 있어 인천은 친정같이 편안하고 포근한 곳이다. 나의 성장사가 곧 인천의 성장사였고,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서려있기에, 누군가는 한곳에서 오래 살면 지겹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매번 같았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스런 아이들의 터전이 되어 줄 인천이 좋다고!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불만 하던데 한번 읽어봐"라며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책을 읽으며 느낀 건 '아, 내가 인천에 대해 몰랐던 것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것. 그 책이 바로 '굿모닝인천'이었고, 이후 '굿모닝인천'은 내 잠깐의 휴식을 함께하는 친구가 됐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된 바람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살기에 더 좋은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인천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경제와 사회, 교육과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나와 같이 인천과 '굿모닝인천'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Noodle Road

격동의 역사가 국수 한 그릇에 녹아 있다. 국수를 치대고 뽑고 삶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한민족의 굴곡진 삶과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짜장면과 쫄면의 고향, 칼국수와 냉면 거리가 있는 곳. 인천은 1883년 개항기에 중국 조계지가 자리 잡고 1935년 우리나라 최초로 밀가루 공장이 들어서면서 고유한 면(麵) 요리가 발달해왔다. '후루룩' 맛있게 한 그릇 툇딱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구불구불 기나 긴 국수 가락을 따라 가면, 굴곡진 역사부터 우리 삶 가까이 존재하는 추억의 한 부분까지 찬찬히 음미할 수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역사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국수 한 그릇
어때요?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춘장 향 짙게 배인, 한 그릇

인천은 깊다. 도시 곳곳에 우리나라 개화기와 근대화를 이끌어 온 역사가 묵묵히 배어있다. 1883년 1월 인천 바다가 열리면서 가까이 있는 중국 산둥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국민음식 짜장면은 여기서 시작했다. 고기와 춘장을 한데 볶아 버무린 국수는 중국에서도 오직 산둥에서만 먹던 음식이었다. 산둥 출신 중국 상인들은 인천항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 여기에 양파와 당근을 가미하고 춘장에 물을 타 연하게 풀어 우리 입맛에 맞추면서,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했다. 짜장면을 처음으로 식탁에 올린 곳은 ‘공화춘’이다. 1912년 ‘공화국 원년의 봄’을 맞는다는 의미로 문을 연 공화춘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미식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공화춘은 1983년 간판을 내리고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혔지만 2년 전, 짜장면박물관으로 다시 영업을 개시했다. 요리집 공화춘의 맥은 끊겼지만 그 고유한 맛과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손덕준(화교협회부회장·58)씨는 공화춘 주방장 출신 아버지에게서 가업을 이어받아 차이나타운에서 요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산둥에서 70여 년 음식을 만들어 온 할아버지로부터 손맛을

전수받았다. 대륙 건너 세대 건너 온 비법이니, 그 맛이 깊고 풍부할 밖에. 가을에 담궈 햇빛에 발효시켜 일 년 내내 숙성시킨 춘장과 부드러운 면발이 어우러져 입 안으로 술술 넘어간다. 원조 짜장면은 역시 다르다.

백령도 메밀 향 가득 담긴, 한 그릇

6·25 전쟁 속에서도 인천은 역사 한가운데 있었다. 전쟁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인천에 남은 이북 사람들 중에는, 황해도가 고향인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북녘에서 먹던 냉면도 함께 흘러들어 왔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황해도 해주식 냉면이 널리 퍼져있다. 정약용도 즐겼다는 해주냉면 맛은 평양냉면, 함흥냉면에 버금가는 진미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백령도는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메밀농사를 많이 지었다. 섬사람들은 그 메밀로 가루를 내 반죽해 면을 만들고 육수에 간장 대신 까나리 액젓으로 맛을 내, 이북식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고유한 맛을 내는 백령도식 냉면을 만들어 먹었다. 백령도가 고향인 변신묵(78) 할아버지는 섬에서 냉면을 팔다 1977년 주안으로 와 40여 년째 냉면집을 하고 있

다. 아들 삼형제와 며느리 셋이 오순도순 꾸려 가는 ‘변가네 웅진냉면’은 인천에서 맛집으로 꽤나 이름이 높다. “나 어릴 때 백령도에서는 겨울이면 다들 냉면을 먹었어. 당시 유명한 냉면집이 있었냐고? 그런 게 어땠어. 냉면이라면 집집마다 다 한 솥찌웠는데.” 국물은 갓 갈거나 도정했을 때 최고의 맛을 낸다. 이 집 냉면은 메밀을 그때그때 빵아서 반죽해 면을 만들어 구수하고 달큰한 메밀 향이 살아 있다. 여기에 한우 뼈를 하루 종일 끓여 육수를 내 맛이 깊고 풍부하다. 부드럽게 감기는 향기로운 메밀 면과 구수한 육수가 어우러져 입 안 가득 번진다. 백령도 추운 겨울 밤, 뜨끈한 구들장 아래서 후루룩 마시던 냉면이, 이 맛이었으리라.

질곡의 역사 담담히 품은, 한 그릇

60여 년 분단의 역사를 지나 온 냉면집이 또 있다. 70여 년 전통의 평양냉면집 경인면옥이다. 평안도가 고향인 고 임금 옥 할머니는 1944년 광복 이후 서울로 내려와 종로에서 평양냉면집을 하다 인천으로 터를 넓혔다. 당시 가장 변화한 중구 신포동에서 경인식당을 인수해 냉면을 팔았는데, 서울과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다소 습습한 육수 맛이 인천사람 입맛에는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다. 하지만 6·25전쟁이 끝나고 인천으로 온 이북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냉면집은 북새통을 이뤘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경인면옥에서 고향을 다시 찾은 것이다. 경인면옥의 대를 잇고 있는 함원봉(72) 할아버지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육수를 손수 우려낸다. 소고기 설깃살을 6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는 끓으면서도 맑고 고요한 맛으로 미각을 일깨운다. 그 비법은 함께 경인면옥을 꾸려 가고 있는 아들 함중옥씨(46)조차 모른다. “저희 집 냉면을 드시는 손님들은 ‘처음 먹을 땐 긴가민가하고, 두 번째 먹으면 맛을 알게 되고, 세 번째 먹으면 육수의 참맛을 알게 된다.’고들 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 종로, 인천으로 삼대째 이어 온 손맛은, 가뭇하다가도 한번 맛들면 자기 전에도 번뜩 생각나 다음 날 찾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

세상에 없던, 한 그릇

1950년대 6·25전쟁이 끝나고 인천의 공장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노동자들에게 국수는 부담 없이 허기를 채우는 한 끼 식사로 딱 이었다. 귀한 소고기로 육수를 낼 수 없으니 갖가지 재료에 고추장 양념으로 맛을 내고, 세숫대야처럼 생긴 큰 그릇에 푸짐하게 냉면을 담아 팔았다. 인천출신 ‘화평동 냉면’은 그렇게 태어났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화평동냉면 골목 일대는 1980년대 초 인근 화수시장에서 작은 냉면집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면서 생겨났다. 인근 대성목재, 동일방



직, 인천제철 그리고 인천항 근로자들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허름한 냉면집을 찾았다. 한창 때는 사람들이 새벽 동틀 무렵 가게 앞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골목 양쪽으로 20여 곳이나 있던 냉면집은 이제 10여 곳만 남았다. 이마저도 곧 불어 닥칠 재개발 바람 앞에 위태롭게 놓여있다. 세상에 없던 냉면을 낳은 인천은, 세상에 없던 또 다른 면을 탄생시켰다. 1970년대 초 중구 경동에 있는 국수공장 ‘광신제면’의 장보성(84) 할머니는 밀려드는 주문량에 그만 면발을 뽑는 사출기의 체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 거기서 나온 굵고 질긴 냉면 면발을 버리기 아까워 이웃한 분식집 ‘맛나당’에 선심을 썼다. 그 주인은 고민 끝에 면을 야채와 고추장으로 새콤달콤하게 버무렸다. 씹어도 씹어도 쫄깃쫄깃한 식감이 꽤 괜찮아 너도나도 찾았다. 이것이 바로 쫄면. 이후 맛나당은 간판을 내렸지만, 그 무렵 쫄면을 함께 판 ‘신포 우리만두 신포동점’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며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마음까지 뜨끈해지는 칼칼한, 한 그릇

쫄면의 고향 신포동은 한때 칼국수로도 유명했다. 1980년대 아이들에게 신포시장 뒤편은 ‘칼집’ 혹은 ‘칼레스트랑’ 골목으로 통했다. 주머니 가볍던 학생들은 이 골목에서 200원, 300원하는 칼국수로 마음까지 든든히 채웠다. 당시 유행하던 홍콩 누와르 영화를 틀어 주기도 했는데, 영화 한 편을 온전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동전을 모아 국수 한 그릇 더 시켜 먹기도 했다.

‘골목집’은 36년 전 신포동 칼국수골목에 가장 먼저 터를 잡았다. 장기선(67) 할머니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만해도 가정집이 모인 평범한 골목이었는데, 할머니 칼국수가 대박나자 10여 가게가 모여들어 성업을 이뤘다. 여기서 칼국수집을 하면 3년 안에 집 한 채 산다고도 했다. 지금은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단 두 집만 남았다. “까만 교복 입은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여. 주말이면 100여 그릇을 팔았으니까. 2층 짜리 방 안이 아이들로 꽉 찼는데, 애들이 벗어놓았다 잃어버린 나이키, 프로스펙스 신발을 물어주느라 아주 혼났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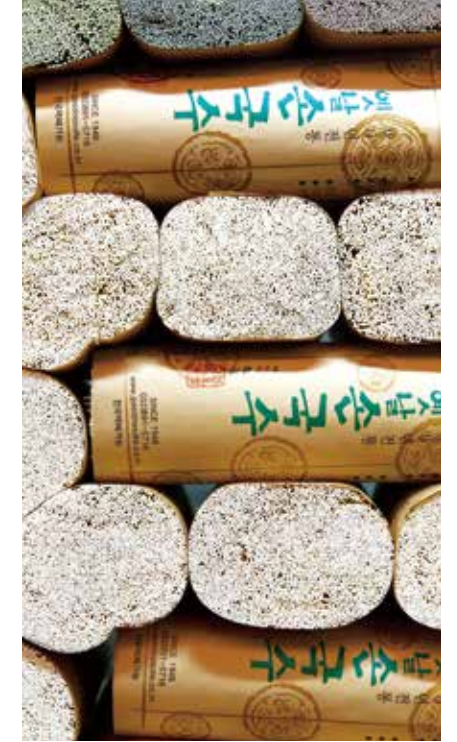
300원짜리 칼국수를 팔고 몇 십 배는 더 비싼 신발을 물어줘야 했으니 손해 보는 장사. 그래도 할머니는 그때가, 그 까까머리 아이들이 그림다. 튀김 가루 잔뜩 들어간 신포동 칼레스트랑표 칼국수를 후후 불어 입 안에 머금는다. 고소하고 진한 추억의 맛이 가슴 깊은 곳까지 후끈 퍼져 나간다.

칼국수하면 또 용동을 빼놓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기생집과 요정이, 1970년대는 저렴한 선술집이 몰려 있어 흥청거린 이 동네는 1980년대 칼국수 골목으로 변신했다.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로 값싸고 시원한 바지락 국물만한 게 있으랴.



용동 칼국수거리의 터줏대감은 ‘초가집’이다. 신경현(81) 할머니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솜씨로 한자리에서 58년 째 국수를 삶고 있다. 시어머니는 한국전쟁 후 용동으로 와 기생들에게 녹두부침개를 만들어 팔다 요정이 하나둘 없어지자 칼국수집을 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설 만큼 장사가 잘 돼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기와집이 지금의 4층집이 되었다.

긴 역사를 지나 온 손칼국수 맛은 과연 어떻게. 콩가루를 넣고 반죽을 빻어 잘 숙성시켜 만든 면은 고소하고 쫄깃하다. 그 뽀얀 면발을 바지락과 갖은 채소를 넣고 끓인 국물에 우르르 끓여 먹는 맛이란. 현재 이 골목은 ‘칼국수거리’라는 팻말이 무색할 만큼 단 네 집만이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아, 이 골목이 국수 댁새로 진동하던 때가 있었던가. 역사는 계속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기나 긴 국수 가락 따라, 역사는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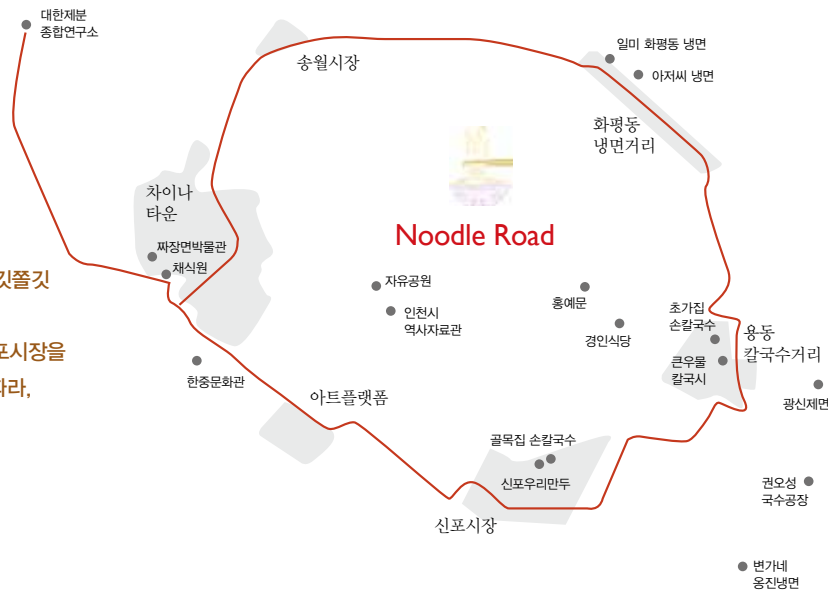
1910년대 일본은 항구가 가까운 인천에 공장을 짓고 한반도 진출의 야욕을 품었다. 일본차량제작소, 이화학속, 동양방직 등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인천에 터를 잡았다. 그 가운데 일본제분은 1935년 지금의 만석동인 무네미 매립지 위에 공장을 세웠다. 밀가루 공장이 생기자 자연스레 그 옆에 국수 공장이 들어서고 시간이 흐르면서 쫄면, 짜장면, 냉면 등 면 요리가 다양하게 발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가루 공장인 일본제분은 1945년 광복 이후 대한제분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에는 오래된 밀가루 공장과 함께 국수를 일일이 넣어 말리는 재래식 국수공장도 있다. 권오성(52)씨는 용현시장에서 15년 째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충남 은산에서 17살 때부터 국수를 만들었다. 가업을 이어 현재 삼 형제가 구월동과 김포 그리고 이곳 용현시장에서 국수공장을 운영한다. 전국에서도 재래식 국수공장은 많지 않다. 밀가루 반죽을 30번 밀고 겹치고 밀고 겹치기를 반복하는 압연 과정 끝에 나온 국수는 한 자락 한 자락 올곧은 자태를 뽐낸다.

구불구불 면 따라 굽이굽이 역사 따라

따뜻한 기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푸근한 정이 넘쳐흐르는 세숫대야 냉면, 학창시절 추억처럼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쫄면 그리고 짜장면. 2018년 인천에 화평동냉면거리, 차이나타운, 용동칼국수거리, 신포시장을 잇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면 따라 역사 따라, 미리 가보는 인천 누들로드.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짜장면박물관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요리집 '공화춘'은 오늘날 짜장면 박물관으로 간판을 새로 걸고 영업하고 있다. 박물관은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공화춘 기록화 보고서'를 토대로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여 지었다. 공화춘에서 사용하던 현판과 의자 등 박물관 곳곳에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자욱이 배어있다. 773-9812

채식원 공화춘 주방장 출신인 아버지에게서 가업을 이어 받은 화교 손덕준(58)씨는 8남매와 함께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중화루, 자금성, 태화원 등의 요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채식원은 국내 유일의 채식 중화 요리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대만에서 배워 온 요리법으로 오신채도 제한 순수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맛이 한층 깔끔하고 담백하다. 772-7888

권오성 국수공장·손국수집 권오성(52)씨는 1948년부터 국수를 뽑아 온 아버지의 대를 이어 15년 전 용현시장에 재래식 국수공장을 열었다. 기계가 대신하는 부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수작업을 고수한다. 손국수는 반죽을 밀고 겹치기를 반복하는 압면과 3일간의 숙성과 건조를 거친다. 기계로 뽑는 국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다. 공장 바로 옆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국수집이 있다. 국수공장 891-5716, 국수집 891-5726

경인식당 평양식 냉면은 6·25 전쟁 이후 서울에서 발달했지만, 인천에도 그 못지않은 유명한 냉면집이 있다. 경인식당은 1944년 서울 종로에서 시작해 1946년 신포동으로 와 역사를 이어왔다. 소고기 설깃살을 6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는 그 맛이 맑고 깊다. 60여 년 분단의 역사를 지나 온 이 집 냉면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762-5770

광신제면 우리나라 면발의 역사를 새롭게 쓴 쫄면이 탄생한 곳이다. 1960년대 말 역사를 시작하여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쓰고 있는 제면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비도 50여 년의 세월을 입었다. 773-2212



신포우리만두 1971년 송현시장에서 2평 남짓한 분식집 '우리집'으로 출발해, 1977년 신포시장으로 와 문을 열었다. 만두와 함께 쫄면을 팔았는데, '쫄면'이라는 이름은 1970년대 초 '맛나당' 주방장이 면이 쫄깃쫄깃하다 해서 불렀다고 전해진다. 쫄면의 면은 두껍지만 부드럽고 쫄깃하다. 양념도 단맛 매운맛 신맛의 삼박자가 딱딱 맞는다. 프랜차이즈로 발전해 미국까지 진출했다. 772-4958



아저씨 냉면 한두 번 젓가락질하다 보면 없던 식욕도 술술 동하는 맛. 인천 출신의 화평동냉면은 지름이 30cm에 가까운 세숫대야처럼 생긴 냉면그릇으로 유명세를 탔다. '아저씨 냉면'은 화평동 냉면거리에서 가장 먼저 냉면을 팔았다고 자신 있게 간판에 내걸었다. 물냉면이든 비빔냉면이든 한 그릇에 5천원. 가격과 양에 있어서는 따라올 것이 없다. 765-3553

일미 화평동 냉면 세숫대야 냉면의 명성을 가볍게 물리친 수박냉면을 판다. 냉면거리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과즙이 철철 흐르는 빨간 속살에 파고든 냉면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송송 썰어 듬뿍 올린 야채와 탱탱한 면발에 고추장 양념을 쓱쓱 비벼 먹고, 여기에 수박을 곁들인다. 비빔냉면의 매콤함과 수박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아낸다. 772-0040

변가네 웅진냉면 변신목(78) 할아버지는 1977년 백령도에서 주안으로 와 40여 년째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긴 세월 문정성시를 이루는 비결을 물으니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먹지"라고 답한다. 무뚝뚝하게 말해도 정이 깊고 맛도 깊다. 메밀을 바로바로 뽑아서 손수 반죽해 면을 뽑아 메밀 향이 진하다. 육수는 한우 뼈로 질게 우려내고, 백령도에서 온 까나리 액젓으로 간 해 풍미를 더한다. 여기에 지글지글 바로 구워 낸 두툽한 녹두부 침개까지 더하면 마음까지 꽉 찬다. 875-0410

초가집 손칼국수 용동 한자리에서 58년째 칼국수를 삶고 있는 관록의 칼국수집. 80년대 이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다녔던 사람들에게 이 집 칼국수는 최고의 해장국이였다. 콩가루를 넣고 잘 숙성시켜 빛은 반죽이 고소하고 쫄깃하며, 바지락을 잔뜩 넣고 끓인 국물은 시원하다. 거리는 쇠퇴했지만 여전히 문정성시를 이룬다. 773-5245



큰우물 칼국수 서정자(57)씨는 이 집의 네 번째 주인으로 8년째 용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 간판도 그대로 맛도 고스란히 전수받았다. 매일 손으로 직접 반죽해 만든 국수를 그 자리에서 끓여낸다. 먹으면 먹을수록 입 안이 칼칼해지고, 국물까지 다 비우고 나면 마음까지 든든하다. 시골집에서나 맛볼 수 있던 손칼국수 그 맛이다. 772-9664

골목집 손칼국수 장기선(67) 할머니는 36년 전 신포동 칼국수골목에 가장 먼저 '칼레스토랑' 터를 잡았다. 이곳은 80년대 아이들의 아지트였다. 그때 까까머리 학생들이 지금 중년이 되어,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를 찾는다. 그들에게 튀김가루 잔뜩 들어간 칼국수는 그저 후루룩 한 그릇이 아닌, 생애 가장 빛나던 시절의 추억 그 자체다. 765-3149



인천에서 아시아 누들을 맞보다 2018년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짜장면과 쫄면의 고향 인천에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우리시는 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짜장면이 있는 차이나타운, 쫄면이 있는 신포시장, 칼국수가 있는 용동, 냉면이 있는 화평동을 연결하는 누들타운을 개발한다. 아시아 누들타운은 9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8년까지 조성한다.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은 짜장면의 발상지로 짜장면박물관을 비롯해 30여 개의 중화 요리집이 있다. 신포동의 쫄면과 용동의 칼국수 거리에는 현재 10여 곳의 국수집이 있다. 또 동구 화평동에는 세숫대야 냉면을 파는 냉면집 10여 곳이 있다. 그 주변은 근대 건축유산, 개항박물관, 답동성당 등 1883년 개항에 따른 문화재가 현존하는 역사적 장소다. 시는 이들 테마별 특색 거리를 연계해 누들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또 '누들 플랫폼'을 세워 누들 문화관과 누들 스토어, 누들 스쿨 등을 조성하고 누들 가게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63





大韓獨立萬歲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은 항일운동을 벌여 온 대표적 독립운동가다.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고, 독립운동과 관련해 일제 치하에서 많은 옥고를 치렀다. 김구 선생은 인천에서 두 번의 감옥생활을 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김구 선생에게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지대'이자 애국청년 김창수를 독립운동가 김구로 바꾸어 민족의 지도자로 이끈 고장이기도 하다. 3·1절을 맞아 인천에 남아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과 탈옥의 루트를 장희숙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돌아봤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용동, 화개동 마루턱, 뽕죽탐...

100년 전

백범 '탈옥루트' 밟다





옛 인천감리서



김구 선생이 노역을 했던
인천항 제1부두

해광사 가는 언덕



용동마루턱에서 본 답동성당 뽕죽탑



답동성당에서 본 내리교회와 성공회 성당

용동 마루턱은 지금의 기독교병원 부근이다. 용동 큰우물과 고유섬 선생의 생가터를 지나 오르다 보면 기독교병원 원이 보인다. 여기서 답동성당의 뽕죽탑이 시원스레 눈에 들어온다. 장회숙 대표는 당시 김구 선생이 보았던 뽕죽탑은 답동성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답동성당은 제물포교회, 프랑스코회로 불렸다.

장회숙 대표는 김구 선생이 용동을 탈출로로 택한 배경을 이렇게 말한다. “당시 용동은 물상객주집들이 많이 있었고 객주들 중엔 김구 선생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 안전한 탈출로 중 하나였다.”

화개동에서 학익, 문학동 거쳐 서울로

용동 마루턱을 지난 백범은 율목동을 거쳐 화개동(현재 신흥동) 마루턱에 이른다. 당시 이곳은 꽤나 높은 고지대였다. 당시 그가 다다랐던 화개동 마루턱은 해광사 언덕 주변이다. 해광사 언덕에서는 인천 전경이 한 눈에 내다 보인다. 김구 선생은 해광사 언덕배기를 내려와 학익동, 문학동을 지나 부평 만월산을 넘어 서울의 양화진 나루에 도착했다.

백범은 1911년 안명근 사건과 신민회 사건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두 번째로 인천감옥에 투옥된다. 당시 김구 선생은 감옥에 있으면서 인천 축항공사(인천항 제1부두)에 동원돼 노역에 시달리다 1915년에 가출 옥한다.

백범은 광복 후 고국에 돌아와 1946년 지방순회를 할 때 인천을 제일 먼저 찾았다. 강화도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열심히 구명운동을 했던 김주경이 살았던 곳이다. 강화 사람 김주경은 백범에게 탈옥을 권유했고, 전 재산을 털어 구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헌신했다. 이외에도 물상객주 박영문, 안호연 등의 인물들도 사형수였던 김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애쓴 인물들이어서 백범과 인천과의 인연은 각별했다.

1896년 ‘치하포사건’으로 인천서 2년간 옥살이

백범 김구 선생이 인천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세가 되던 1896년이다. 일본 군사 간첩을 죽인 ‘치하포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중구 내동에 있던 감리서 옥사에 갇혔고, 여기서 2년간 옥살이를 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김구 선생은 1898년 3월 9일 인천감리서 감옥을 탈옥한다. 당시 김구 선생은 인천의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용동 마루턱, 천주교당 뽕죽집, 화개동 마루턱, 북성고지 모래밭, 부평 등의 지명을 통해 자신의 탈옥 경로를 남겼다.

김구 선생이 탈옥해 밤새 헤매던 북성고지 모래밭은 인천역 주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역은 바닷가였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기껏 달아난다고 다닌 곳이 감리서 뒤 용동 마루턱이었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천주교당의 뽕죽집이 보였다.”고 쓰고 있다. 장회숙 대표는 당시 김구 선생이 본 천주교당 뽕죽집은 내리교회가 아니라 지금의 답동성당이었다고 한다. 김구 선생이 탈출했을 당시엔 내리교회가 없었다. 내리교회는 1901년 건립됐다. 김구 선생은 내동에서 중국 인모지를 거쳐 용동 마루턱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탈출로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던 으스스한 길을 이용했다.

담설야증거 불수호난행 금일야행적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걸아간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시는 백범 김구선생이 조국분단을 막고
통일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결행하였던
남북연석회의를 전후하여 자주 쓴 글이다.



인천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의 자취



매년 3월이 되면 우리민족의 독립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났던 3·1만세 운동을 생각하게 된다. 선열들이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떨치고,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찾고자 했던 저항과 항거의 상징이다. 3월을 맞아 독립과 광복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흔적과 자취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여행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대나무

김진우 선생은 감옥에서 본인만의 묵죽 화법인 죽간이 창처럼 곧고, 죽엽은 칼처럼 삼엄한 금속같은 대나무의 모습을 완성하며 저항정신을 표출했다.

사진 송암미술관 제공

김진우, 오세창 독립의 혼 스민 ‘서예작품’을 보다

송암미술관에는 평생을 항일운동에 바친 묵죽화의 대가 김진우 선생(1883~1950)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진우는 대나무만을 평생 탐구해 ‘대나무 화가’로 통한다. 그가 즐겨 그렸던 대나무는 항일운동가로 곧은 기상을 가졌던 작가의 저항의식의 상징이다. 묵죽화가 김진우는 삶 전체를 독립운동과 함께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강원도 의원으로 선출됐고, 1921년 신의주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황해도 서흥감옥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본인만의 묵죽 화법인 죽간이 창처럼 곧고, 죽엽은 칼처럼 삼엄한 금속같은 대나무의 모습을 완성하며 일제를 향한 저항의식을 표출했다. 송암미술관에는 김진우 작가의 8폭 병풍과 대나무 그림을 소장하고 있어 훼손당한 시대를 운몽으로 맞서 싸운 작가의 숭고한 정신을 볼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운동가 오세창(1864~1953)의 서예작품도 송암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오세창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이다. 이곳에는 오세창의 서예작품 10여 점이 있다. 중국 한자의 원형인 전서체와 그림을 합한 6폭 병풍은 전실에서 볼 수 있다. 오세창은 서화사 및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여 서화가로써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엔 조선인 미술가를 위한 대표적 전람회였던 사회협화전에 출품 작품을 출품했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라는 평을 들었다. 정부는 독립운동에 대한 그의 헌신을 기려 1982년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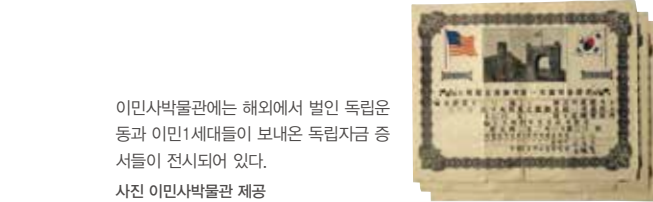
인천 3·1만세운동의 진원지, 창영초등학교와 김명진

인천공립보통학교(현재 창영초등학교) 김명진 학생은 인천 최초의 만세운동 지도자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조선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학년 재학중에 동급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3월 6일 김명진이 중심이 된 3,4학년 학생들은 정오에 학교를 출발하여 인천공립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인천부 중심가를 행진하면서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이 일로 김명진은 학교에서 제적당한다.

동맹휴학 투쟁이후에도 김명진은 일제에 항거하는 조직적인 투쟁을 계획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창영초등학교에는 김명진이 1919년 7월 25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상고문에서 자신의 독립의지를 밝힌 내용을 새긴 비석이 서있다.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바탕한 의사발동이지 범죄가 아니다.” 창영초등학교는 선배이자 독립지사인 김명진 선생의 뜻을 잇고자 ‘김명진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뜻을 펼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또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수업교재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창영초등학교는 매년 입학식때 만세 삼창을 하고, 3·1절 노래도 부르며 3·1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를 열고 있다.

해외에서 항일운동, 독립자금 보내온 이민1세대

이민사박물관에는 해외에서 벌인 독립운동과 이민 1세대들이 보내온 독립자금 증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비록 몸은 멕시코로 중남미로 이민을 떠났지만 타국에서 하루도 조국의 광복을 잊지 않던 선열들의 피와 땀이 뻗은 흔적들이다. 이민 1세대들은 조국 광복을 위해 군자금과 독립지원금을 모금해 조국에 송금했다. 박물관에는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등이 주축이 된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대한독립운동회에 보내는 제1차 의연금 증서, 미국 우정국이 발표한 독립기념우표, 중국 용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다. 당시 해외에 나간 동포들이 얼마나 조국의 광복을 염원했는지 절절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교육특구로 변신하고 있다. 송도는 이미 외국대학의 캠퍼스가 속속 문을 열고 있고, 국내대학인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는 물론 외국어대, 인하대 등도 추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은 이제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곳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잘 갖춰진 교육인프라를 찾아 유학오고 싶은, 교육도시가 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연세대 신촌 독수리 4천명 송도에 둥지 틀다



신입생 4천명 송도에서 1년간 기숙생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입학한 4천명의 신입생들이 올해 3월부터 송도국제캠퍼스에서 1년간 기숙생활을 시작한다. 연세대 신입생들이 타 지역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송도주변은 연세대 독수리들로 인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전원은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인재를 교육하는 레지덴셜 칼리지(RC) 프로그램을 교육받는다. 신입생들은 전공, 학사지도, RC지도교수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심층교육과 생활을 지도받는다. RC교육프로그램은 전공학습을 기숙사내의 다채로운 외국어, 문화, 스포츠와 접목하여 확장시킨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에 꿈과 희망을 품은 학생들의 밝고 환한 얼굴들이 캠퍼스를 누빌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올해 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송도국제캠퍼스에 있는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HASS(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 ISE(Integrated Sciences and Engineering)과정을 처음 개설한다. HASS는 사회과학부이고, ISE는 융합과학공학부로 올해 입학정원은 350여명이고,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연세대는 2011년 송도국제캠퍼스를 조성하고 송도시대를 열었다. 연세대는 새로운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10년 제2 강의 연구동, 문화센터, 제1기숙사, 도서관, 주차장을 완공했고, 2011년 3월부터 6개 학부에 5백여명을 모집하고 송도국제캠퍼스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인천대 2020년 5대 거점 국립대학 진입 목표

인천대는 2009년 제물포에서 송도로 이전한 후 제2의 창학을 펼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후 국제화를 이끄는 첨단 글로벌 캠퍼스로 도약했고, 2013년 1월 국립대학으로 전환해 인천의 자량이자 유일한 국립대학이 됐다.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기능을 활성화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식창출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펼칠 방침이다.

인천대는 인구 293만명의 전국 3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이 없어 고등교육이 열악했던 인천시에 설립된 최초의 국립 종합대학이다. 국립대 전환이후 'INU 송도비전 선포' 및 내부개혁을 추진하며 2020년 5대 거점 국립대학 진입을 위해 대학구성원들이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국립대로 전환한 후 대학 교수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포스트-닥 사업', '인천융합기술연구원 설립추진', '신임교수 연구보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는 '송도 캠퍼스 3개동 증축', '제2기숙사 건립', '미추홀타워 별관 및 R&D부지인수'를 진행하며 중국학술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대는 국립대 전환 1년을 맞아 송도캠퍼스 증축을 추진한다. 541억원을 투입 송도캠퍼스 3개 동을 증축하고, 2015년 4월 마무리한다. 증축공사가 끝나면 전문대학의 통합으로 부족했던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습실을 대폭 확보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및 교수 여건이 좋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는 2010년 3월 인천전문대와 통합하면서 한 학년 학생수가 1천680명에서 2천680명으로 늘어 연구·강의공간이 부족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인하대, 외국어대, 재능대 등도 들어온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연세대, 인천대 외에도 인하대, 외국어대, 재능대 등이 추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인하대는 송도 11공구 22만 5천㎡에 특성과 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조성,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외국어대는 5공구 4만8천㎡에 통·번역원, 국제비즈니스센터, 국제지역연구클러스터, 한국어문화교육원 등을 갖춘 국제화지원특화단지를 세우기로 했다.

인천재능대는 송도 6공구 3만6천㎡에 한식세계화연구센터, 글로벌외식조리동 등을 갖춘 국제화캠퍼스를 조성하고, 2016년 개교할 예정이다.

인천가톨릭대는 송도동 193-3번지 4만㎡에 송도글로벌교육연구캠퍼스를 조성한다. 조형예술과 신학대학원, 국제유치원, 국제어학당, 국제교류관, 산학연구센터,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개교는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교육기관들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연대'

송도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자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재능기부 활동은 대학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을 지역학생들에게 나누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는 '연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인(延仁)프로젝트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우수한 재능과 역량을 가진 대학생들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멘토가 되어 학력향상과 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시, 교육청,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지역 고교생들 사이에서 인기다.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학점을 얻고 멘티(Mentee)인 고교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함께 공부하거나 진로상담을 받는다. 인천시는 큰 호응에 부응하고자 3월초까지 인천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멘티 2천400명과 연세대 송도캠퍼스 대학생 멘토 1천200명을 모집해 두 번째 연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채드워 국제학교 고등학생들은 송도지역 내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1~4학년)과 함께하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인 '북버디(Book Buddy)'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 책을 읽어 주고 긍정적인 독서습관을 길러 주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국제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다양한 액션과 목소리를 변화시키며 영어책을 흥미진진하게 읽어줘 다들 재미있어 한다. 채드워 국제학교 학생들은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나 영어책을 함께 읽고, 책을 활용한 게임과 활동을 한다.

북버디 멘토링에 참여하려면 연수구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yspubliclib.go.kr)나 방문, 전화 749-8220으로 하면 된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갖춘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시는 세계 100위권 대학 10개, 1만명의 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송도글로벌캠퍼스를 조성했다. 2012년 뉴욕주립대가 개교해 대학원과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조지메이슨, 9월에는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인천으로 유학오는 시대를 열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조지메이슨, 유타대 등 개교
“인천으로 유학 오세요”



Songdo



한국뉴욕주립대

2012년 3월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첫 동지를 틈 대학은 뉴욕주립대(SUNY Korea)다. 개교 첫해인 2012년 컴퓨터과학과와 기술경영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 학부과정을 운영하며 기술경영학과 신입생을 선발했다. 2014년 9월엔 컴퓨터공학 학부과정을 여는 등 매년 학과를 확대하고 있다. 학생수는 807명이 예상된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주립 대학교군인 뉴욕주립대학교의 4개 종합대학교 중 하나. 이 학교 커리큘럼은 미국 본교 교수진이 직접 파견한 교수가 100% 영어로 진행한다. 미국 본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된다.

한국조지메이슨 3월 개교

미국 내에서 법학 분야 대학순위 30위, 공공행정 분야 순위 24위에 올라 있는 조지메이슨대도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맞는다. 3월 개교하여 경제·경영학과에 80명씩 학부생들이 들어와 공부하며, 2015년에는 국제학과가 오픈한다. 커리큘럼은 1,2학년은 송도에서 일반교양, 기초전공, 중급, 선택,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3학년은 미국 본교에서 일반 교양과 기초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거치며 4학년 과정은 다시 송도에서 공부한 후 학위를 수여 받는다. 학생들은 미국 본교 캠퍼스의 우수한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겐트대와 유타대 9월 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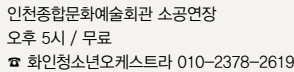
겐트대는 작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분자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과를 개설하고 최근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 겐트대는 1871년 설립된 벨기에 최고 명문으로 2013~2014년 더 타임즈 세계대학 순위에서 85위(생명과학 분야 36위)에 올랐다. 유타대(Univ of Utah)는 공중보건학 대학원 과정을 비롯한 심리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등의 과정에 총 275명의 학부생을 모집하며 9월 오픈한다. 이 대학은 미국 유타주의 주립대학교로 1850년 설립해 상하이 교통대 세계대학 평가 85위, 미국 생명공학분야 27위의 세계적 명문대학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등도 추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St. Petersburg Conservatory), 볼쇼이국립발레 아카데미 등과도 학교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국립음악원(컨서바토리), 볼쇼이 발레단 부설 모스크바 국립무용아카데미(볼쇼이 발레 아카데미)의 인천 분교를 설치를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과 소관 부처인 문화부에 직접 전화해 하루 빨리 분교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인천과 러시아의 문화교류 사업은 탄력을 받고 진행 중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국립음악원 송도 분교는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합창지휘과의 4개 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다. 5학년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총 정원은 600명이 될 예정이다. 볼쇼이 발레단 부설 모스크바 국립무용아카데미(볼쇼이 발레 아카데미)도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우선 학부 과정을 먼저 열어 무용수, 안무가, 지도자 과정 등을 만들어 과당 20명, 학년당 60명 등 전체 약 240명 가량의 학생을 받고 학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대학원 과정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모스크바 국립무용 아카데미는 러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발레 학교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이외에도 라스베이거스주립대도 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2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천원
☎ 505-599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 에이프로덕션 1566-9921

~3월 6일 제14회 대한민국제물포서예문화대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3월 5일~5월 16일 박성환 개인전 '영적·실재 그 자체의 세계 우주최초 창시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3월 6일~5월 31일 인천아트플랫폼 2014년 5기 입주예술가 프리뷰전
/ 인천아트플랫폼 A, B, H동

3월 7일~3월 9일 제11회 인천남명품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3월 7일~3월 13일 6인 시각 사진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 19일~3월 30일 스튜디오 16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3월 21일~3월 27일 사제서품 30주년 기념서예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일시 : 3월 13일(목)오후 8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1588-2341



땀은 어민의 생명입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땀을 만들면서 어민들을 생각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 정성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일해 왔습니다.”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인근에서 50여 년 넘게 땀을 만들고 있는 동광철공소 길철근 사장(67)의 일에 대한 철학이다. 길 사장은 50여 년 넘게 쇠를 주무르고 만지는 일을 해왔기에 쇠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그에게 쇠는 딱딱하고 차가운 물질이 아닌 어르고 달래가면서 영혼을 불어넣는 대상이다. 그래서 그에게 완성된 땀은 예술품이고 창작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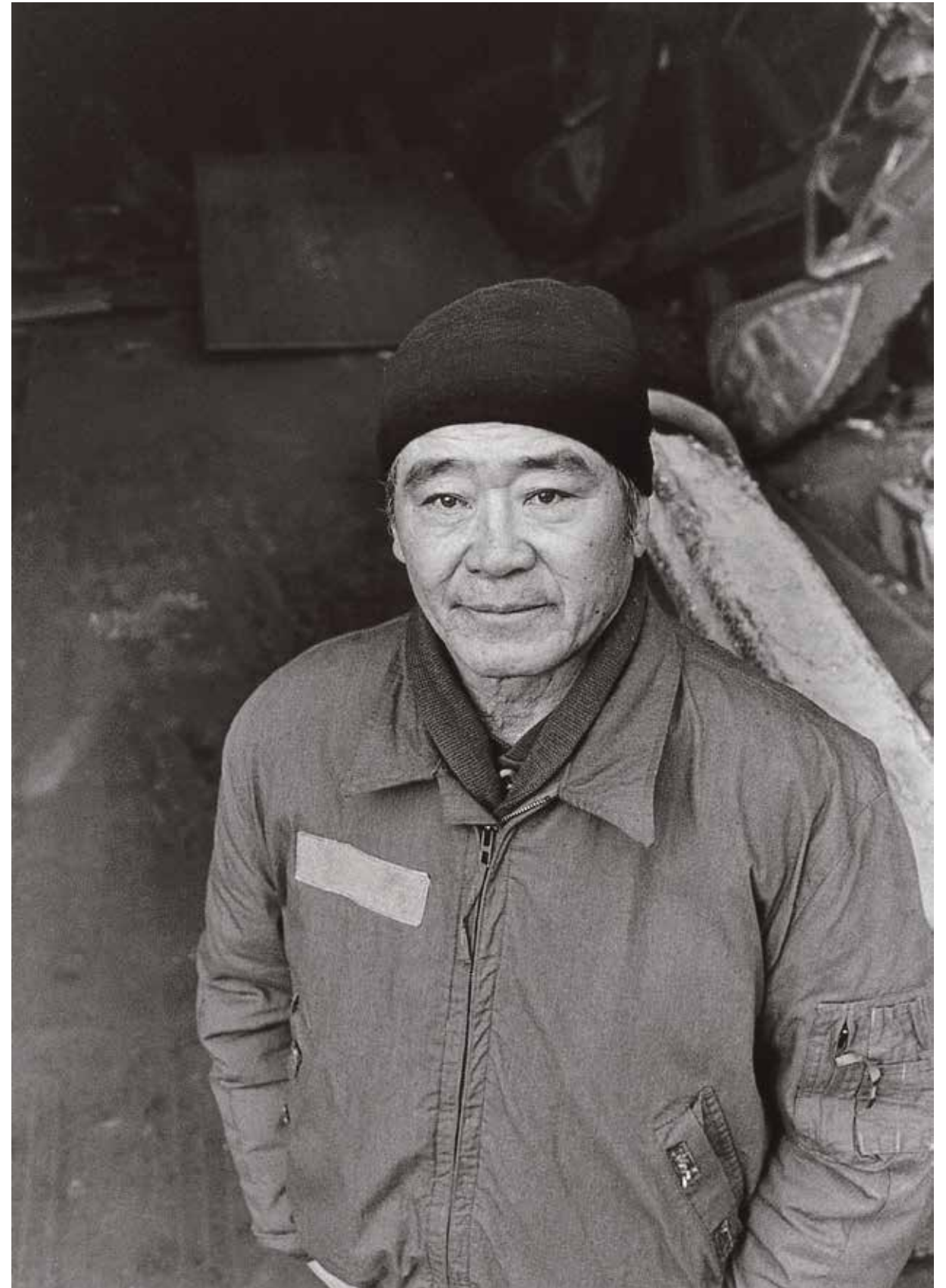
길 사장은 어릴 때부터 쇠 덩어리 옆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일하는 철공소에서 놀았고, 일을 도와주면서 쇠와 친해졌다. 대학도 포기하고 철공소 일을 배웠다. “제 이름이 ‘철근’이잖아요.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50여 년 넘게 철공소를 지켜왔다.

아버지의 철공소를 물려받은 후 땀 전문으로 바꿨다. 그의 아버지는 배 못을 주로 만들었다. 목선이 없어지고 ‘에팰피(FRP)’라 불리는 플라스틱 배들이 나오면서 배 못의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어민들이 참 불쌍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박할 수 없어요. 밤낮없이 일하고 예전엔 배 줄을 당기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가 만드는 땀에는 어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를 잡을 때 배가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서있게 하며, 그물을 지지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돕는다. 풍량이 쳐도, 파도가 거세도 끝까지 바다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 땀이다. 바다속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장비가 곧 생명인 셈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저울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길 사장은 아버지의 유언같은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영리를 생각하지 않고 땀 만들기에 정성을 다한 장인이다.

어민들을 생각해 허투루 만들 수 없었던 땀은 서해바다에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서 주문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덩핑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노라면 우직하게만 살아 온 자신의 삶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도 길 사장은 유학까지 다녀온 두 딸을 잘 키운 걸 인생 최대의 보람으로 삼았다. 딸들도 아버지의 예술혼을 닮아 피아노, 미술을 전공했다.

그는 평생 어민과 함께 하며 좋은 땀을 만들려고 노력한 세월이 아쉽지는 않다. 남은 시간도 주어진 일을 하면서 뱃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게 희망이자 바람이다.



승리, 그 이상의 감동

인천유나이티드



“매 경기마다 인천시민과 팬들에게 승리 이상의 감동을 전하겠다.” 인천유나이티드의 2014년도 캐치프레이즈는 ‘승리, 그 이상의 감동!’이다. 항상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천의 비전을 담았다. 지난해 시·도민 구단 중 유일하게 K리그 클래식 상위스플릿에 진출했던 인천은, 올 시즌 조동암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구단 전직원이 하나되어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시민구단 최초의 ACL진출, 평균관중 1만명 달성, 구단 재정의 자족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3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휴식기에 들어갔던 K리그 클래식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3월 15일 오후 2시 인천유나이티드는 전북현대를 상대로 홈 개막전(장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치른다. 최근 2년 사이 인천의 주전 선수였던 정인환, 정혁, 이규로를 시작으로 올해 김남일과 한교원까지 총 5명이 전북으로 이적했다. 그 결과 두 팀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은 상황. 주장 박태민을 필두로 이석현, 구본상 등 주요 선수들이 올해 전북과의 개막전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필승을 다짐하기도 했다. 인천의 홈 개막전, 화끈한 축구전쟁을 기대해도 좋다.

또한 이날 경기장에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연인과 데이트, 가족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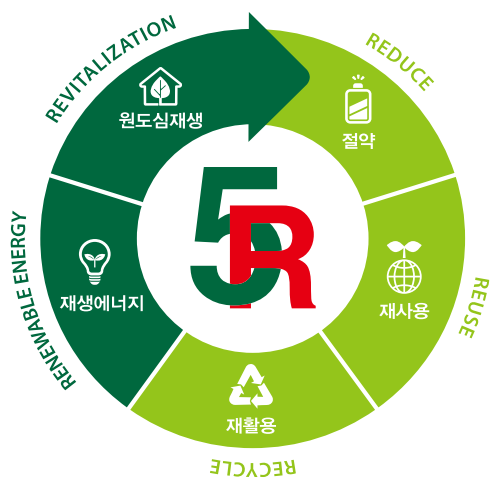
일 자	시 간	홈 팀	원정팀
3월 15일(토)	14:00	인천	전북
3월 30일(일)	14:00	인천	전남
4월 9일(수)	19:30	인천	부산
4월 13일(일)	16:00	인천	수원
5월 3일(토)	16:00	인천	서울
7월 6일(일)	19:00	인천	상주
7월 9일(수)	19:30	인천	성남
7월 23일(수)	19:30	인천	포항
7월 26일(토)	19:00	인천	울산
8월 10일(일)	19:00	인천	경남
8월 24일(일)	19:00	인천	제주
8월 30일(토)	19:00	인천	부산
10월 5일(일)	16:00	인천	상주
10월 11일(토)	14:00	인천	포항
10월 18일(토)	14:00	인천	전북
10월 26일(일)	14:00	인천	경남

구 분	입장권			비 고
	ENS석(일반석)	W석(본부석)	N석(원정석)	
성 인	1만원	1만5천원	1만원	특별석 2만5천원 테이블 3만원
청소년	6천원	1만원	6천원	
어린이	3천원	5천원	3천원	



지구 살리는 ‘5R 운동’을 아시나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등지를 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GCF가 지구 기후변화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지구에 초록빛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맑고 밝게 만드는 길에 함께 하세요.



인천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5R 운동을 추진해 980여 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11만8천686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30년생 소나무 1천80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인천대공원 298.4ha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숲에서 1년간 흡수하는 양이다.

이를 위해 인천환경공단은 자원절약·감축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에너지 활용과 수자원 이용 등 5개 분야 26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왔다.

한편 우리시는 GCF 사무국 유치도시에 걸맞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5R운동(절약 Reduce, 재사용 Reuse, 재활용 Recycle,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Renewable Energy, 원도심 재생 Revitalization)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민, 시민사회단체,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R 운동 범시민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5R 운동을 널리 확산시켰다. 그리고 나눔과 기부가 있는 ‘송도 굿마켓’, 사랑의 집고치기 ‘사랑家 꿈’, 작은도서관협회에 중고서적을 기증하는 ‘잠자는 책 나눔 행사’ 등을 펼쳐 5R 운동의 불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

앞으로도 293만 인천시민이 5R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GCF 본부도시로서 녹색마인드를 함양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서 자긍심을 더욱 높이길 기대한다.

5R운동이란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마련,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재생(Revitalization)등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문의 : 시 GCF전략과 440-8583



일본 음반 틀지 못하게

시내 다방 단속

정리 유동현 본지면집장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단기 4286년(서기 1953년)부터 단기 4289년(서기 1956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당시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 원문을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백반(白飯) 판매에 대한 엄단

전시 생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 사회과에서는 관하 전역에 걸친 각 요정 및 대중식당의 운영업자는 백반 및 떡국을 팔지 못하도록 경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초를 맞이해서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업자들이 종종 발견되는 폐단이 있음으로 각 업자들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하며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리라고 한다. (1953년 1월 24일자)

요식 다방업자 시간 엄수하라

접객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엄수하라는 것은 취체 당국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주의를 환기 시킨 바 있었으나 아직도 관계 당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번번이 영업시간을 어기는 무지각한 업자들이 있다. 즉 지난 19일 밤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도록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시내 용동 담수장(요식업)과 소원다방 업주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데 이후에도 위반자가 있으면 발각되는 대로 계속 엄중한 처분할 것으로 업자들에게 통고하고 있다.

(1953년 2월 25일자)



시내 399개소 우물 수리 공사

시멘트 1200포는 이미 배부

시내 각처에 산재하는 공동우물은 시민들의 수용량 급수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그동안 보수공사를 못하였던 관계로 주변이 어지러워진 곳이 많아 시민들의 공공위생에 극히 우려됨으로 시 건설과에서는 이번 399개소의 공동우물을 수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리공사에 필요한 시멘트는 벌써 지난 20일 1천2백 포대를 각 동에 배부하였다고 하며 각 동에서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일제히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1953년 3월 25일자)

경기도내 우량아 심사

인천 어린이 1,2,3등 입선

지난 19일, 20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선발된 우량아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네 명이 참석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당당히 1, 2, 3등을 모조리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날 영예의 당선을 본 어머니들에게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과 상품으로 은수저들을 받았다고 하며 내무국장은 당선된 귀여운 어린이들을 정성껏 양육한 어머니들에게 찬사를 하는 한편 국장 애용의 자동차까지 대주어 어린이들을 인천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하는데 당선된 어린이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등=신흥동 3가 18번지 김인자(여) 8개월 2등=송의동 314번지 박일현(남) 1년20개월 3등=금곡동 59번지 이순석(남) 11개월 (1953년 5월 27일자)



사용 엄단 일본 음반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랜 일본 음반 소리가 지금도 소위 문화인의 휴식처이며 지식인들의 집결 장소인 다방에서 흘러나온다고? 일본 음반 사용금지에 대하여는 당국으로부터 수차에 거쳐 지시한 바도 있으나 들은 체 만 체 민족적인 도의성을 망각하고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음은 민족의식을 망각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각 다방 업자에게 통첩을 내어 좀더 자숙하고 민족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이후부터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다. (1953년 6월 24일자)

송도고교 이전

송도중학교 및 동 고등학교는 피난 이후로 만국공원 언덕 밑에 있는 판자교실에서 수업을하여 오던 바 지난 8월 중순 경의 적산가옥 집단 불하 시에 관재국으로부터 시내 답동 소재 용운사(龍雲寺)를 불하 받아 10월 1일 부로 이전하였다고 하며 이제까지 사용 중이었던 판자교사는 분교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1953년 10월 7일자)

해광사에 안치 중인 영현들을 참배하자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멸공 전선에서 적과 용감히 싸우다가 불행히도 흉탄을 받고 다만 불멸의 공훈만을 남기고 조국의 수호신이 된 경기도(당시 인천은 경기도에 속함) 출신 영현 527주는 지난 11월 26일 정오경 축현역(현 동인천역)에 안착하자 재인 각 기관장, 남녀학생 그리고 일반시민이 다수 봉영하는 가운데 무언의 귀향을 하여 영현은 남자 학생들의 품에 굳게 안겨 시내 해광사로 향하여 안치되었다. 인천시에서는 국가의 방패로서 한 몸을 희생한 이들 영현을 참배함으로써 후방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각 동장들은 솔선수범하는 견지에서 일반 동민에게 주지 철저를 기하고 참배하도록 요망하고 있다.

(1953년 12월 9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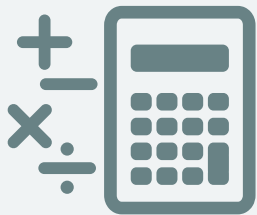


News Brief

올해 경제성장률 2.7% 전망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올해 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2.7%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014년 인천경제전망' 자료를 내고 인천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2013년보다 0.2%포인트 높은 2.7%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발연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증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와 경기 부양 정책,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정책의 본격화 등이 인천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도 물가가 낮아 생기는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전년(1.08%)보다 높은 2.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 취업자수는 전년(144만2천명)보다 3만6천명이 증가한 147만8천명 대로 추정되며, 고용률(15세 이상)은 0.3%포인트 높아진 61.3%로 전망된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해(4.17%)보다 다소 감소한 4.1%이지만, 구직을 희망하며 전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국 평균(3.0%)을 웃도는 최고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 인천발전연구원 ☎260-2624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2018년 준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유기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당초보다 4년 앞당긴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침전, 여과, 소독 등 일반정수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 유기오염물질 등을 오존살균과 활성탄(숯) 흡착 추가 처리로 수질을 높이는 기술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4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1천6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70%인 1천181억원은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애초 4개 정수장 가운데 부평정수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정수장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품질의 수돗물을 지역 차별없이 같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나머지 3개 정수장(남동·공촌·수산)에 대한 공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9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우리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201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전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및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며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트인 Biz OK(bizok.incheo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 시 일자리정책과 ☎440-4233



News Brief

'광역교통정보 내비게이션' 구매에 보조금

우리시는 정확한 광역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내비게이션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에서 차량에 설치된 통신장치(OBE)와 도로 및 주요지점에 설치된 노변기자국(RSE)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이다. 지금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모든 차종으로, 긴급 및 특수차량과 제한된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지금 희망 시민은 먼저 지정판매점(현재는 아이나비 및 에세텔 홈페이지에서 on-line 판매중)에서 UTIS내비게이션 단말기를 구입한 후 UTIS 홈페이지(www.utis.go.kr)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82



세계동물보건기구 회의 10월 개최

우리시는 인천수의사회와 함께 '제3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 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를 유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14일~16일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전 세계 OIE 회원국 회원사 및 관련 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OIE가 공인하는 세계 표준 실험실과 협력센터의 담당자들이 각자 연구결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위해 협의와 논의 등 사전 조율 기회를 갖는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1050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능력 인정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능력평가에서 축산물검사 전 분야에 대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화학, 미생물, 잔류물질, 한우확인시험 등 축산물 검사 분야에 대해 매년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3년에는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11월 실시한 검사능력 평가결과와 평가항목 전 분야에 대하여 '양호' 판정을 받아 인천지역 축산물 법정검사기관으로서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문의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440-567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167개 선정

우리시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9개 분야 167개 사업을 선정해 총 16억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체의 추진역량과 사업계획 타당성, 파급효과,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사업을 중점 고려해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작년과 같지만 지원금액을 조정해 사업수를 늘렸으며, 확정된 지원단체와 금액은 인천시 시민단체네트워크 홈페이지(ngo.incheon.go.kr)에 공개된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2442

청라 첫 복합문화센터 착공

서구청은 지난달 4일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내 부지에서 청라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청라도시 첫 복합문화센터인 이 시설은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9천19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내년 상반기 먼저 개관하는 1단계 건물에는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 2016년 3월 문을 열 2단계 건물엔 공연실·전시실·문화강좌실 등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문의 : 서구청 ☎ 560-4341



송도 매립과정 양질 모래 발견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매립공사 과정에서 양질의 모래 100만㎡를 발견해 약 125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인천항 접근항로 준설작업 과정에서 퍼올린 모래의 질이 준설토 평균 질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건설품질기술원에 토질 시험을 의뢰했다. 이 시험에서 모래의 굵기와 물을 통과시키는 계수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오자 경제청은 이 모래를 기반시설 설치 시 연약지반을 강화하는데 쓰기로 했다. 경제청은 우선 발견량의 절반 물량인 50만㎡를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모래 비용 50억원과 운반 비용 25억원 등 예산 약 75억원을 1차로 절약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 물량은 6·8공구 기반시설 설치 등 인근 공사 현장에서 쓸 예정이다. 쓰임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모래 비용 약 50억원이 추가로 절약될 전망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52



News Brief

서해5도 어선 70~80척 관행 어업 양성화

우리시는 서해5도의 어선 266척 중 70~80척이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 5도서 지역 어선들 가운데 47척만이 한시 어업을 인정받았을 뿐, 나머지는 연안통발이나 연안안강망 등 어업허가 외 관행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수산관계법령(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해5도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관행어업에 대한 국립수산물학원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이번 관행어업 양성화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달 24~26일 백령, 대청면사무소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또 올해 말까지 국립수산물학원(서해수산연구소)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토대로 웅진군에서 2015년 3월부터 기존허가 건수 범위내에서 허가 전환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안안강망 허가가 없는 백령·대청 어선 47척에 대해 5~6월까 나리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어업 허가를 통해 어가 당 약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관행어업 양성화를 통해 어가당 약 5천만원 내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수산과 ☎440-4862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서 종합 2위

우리시는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점수인 1만4천200점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전통의 강세 종목인 빙상과 스키에서 메달 각 13개를 수확했다. 경기도가 1만4천665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강원도가 1만2천631점으로 종합 3위를 했다. 시는 메달 22개를 탄 경기도와 비교해 메달 숫자에서는 앞섰지만 단체전 점수가 적어 준우승했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71



News Brief

인천 섬 지역 관광객 뱃삿 3월부터 50% 할인

웅진군은 3월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섬 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50% 할인된 여객운임을 적용한다. 우리시와 웅진군이 각각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며 할인 대상은 연륙교가 놓인 영흥도와 뱃삿이 저렴한 북도를 제외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5개 섬을 방문하는 인천 외 지역 거주자다. 여객선사가 여객운임의 15%를 부담하고 인천시와 웅진군이 35%를 지원해 방문객은 뱃삿의 50%만 내면 된다. 여객운임 할인 종료 시한은 2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로 여름철 성수기인 7월과 8월 방문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웅진 섬 지역 방문객은 출발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한국해운조합 예매 인터넷 홈페이지(island.haewoon.co.kr)에서 사전 예매해야 하며 연간 여객운임 할인 횟수는 1인당 세 차례로 제한된다.

문의 : 웅진군청 ☎ 899-2213



5개 노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우리시는 교통정보를 수집, 이용자에게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을 올해 5개 노선에 구축한다. 시는 올해 앵고개로(논고개길 사거리~소래포구 사거리) 4km, 논현고잔로(면허시험장삼거리~논현변전소 사거리) 3km, 매소홀로(낙섬 사거리~학산 사거리) 4km, 강화(알미골 사거리~인산 삼거리) 15km, 영종(거잠포입구삼거리~북측 유수지 삼거리) 12km 등 모두 5개 노선 38km 구간에 걸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구간에는 교통정보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가변안전전광판(VMS), 노변기지국(DSRC RSE), 교통상황용 CCTV시스템, 광전송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82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선정

우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1개의 광역지자체가 응모했으며 서류평가, 현장방문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천은 새로운 콘텐츠 분야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콘텐츠코리아 랩에 대한 사업이해도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은 올 4월 말 준공하는 JST타워에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음악(록페스티벌), 누들(차이나타운), 뷰티(화장품, 휴띠고)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를 융합해 진행된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3994



무료 심리검사 및 치료 희망자 접수

인천시아동복지관이 아동·가족 심리검사 및 치료 희망자를 접수한다. 임상전문가 6명이 투입돼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진행한다. 아동심리치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불안, 주의력결핍, 학교부적응, 틱장애 등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미술·모래놀이 치료를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또한 가족심리치료는 부모-자녀 및 부부갈등, 정신건강 등 가족문제 치유를 위해 가족치료전문가가 총 10회 상담을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심리검사 및 치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아동복지관은 올해 상반기중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새롭게 단장해 이전할 계획이다.

문의 : 아동복지관 ☎434-6436~7



저소득 노인 상안검수술 무료 시술

우리시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외에 소재한 병원과 연계해 상안검 수술 무료 시술 사업을 추진한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 수급대상 노인 등이며, 노화로 진행된 안검하수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전수 조사한 후 신청을 받아 상안검 수술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를 병원과 연계해 무료 시술을 진행한다. 무료 시술 인원은 매월 4회, 8명(1회당 2명)으로 계양구 작전동과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2개의 병원에서 시술을 시행한다. 1차 무료 시술 대상자는 서구와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지난달 5일 첫 시술을 받았다. 안검하수(眼瞼下垂)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은 주민센터, 군·구 노인관련업무 담당부서 또는 노인복지회관 등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5

내항, 테마형으로 개발된다

인천항 내항 1, 8부두 재개발 윤곽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 17일 내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항재개발 지원협의회(22명)를 통한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기본적인 개발컨셉과 도입시설에 대한 윤곽을 확정했다. 내항 주변지역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아울렛 상가 도입을 배제하고, 인천항 개항 역사·문화 콘텐츠를 갖춘 테마형 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선상박물관, 선상호텔 등 바다와 어우러지는 시설 유치를 위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구역을 당초 29만9천775㎡에서 29만1천696㎡로 변경하고, 단절된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육교(2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의 : 항만공항시설과 ☎440-4812



중앙도서관 다자녀 가구에 책 무료 배달서비스

중앙도서관은 지난 2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책을 무료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6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구다. 중앙도서관은 이들 가구에 책을 무료로 택배 서비스하고 반납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택배비는 전액 도서관이 부담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 6세 이하 자녀 세 명 이상 있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2일간이고 최대 10권까지 가능하다. 1회에 한해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아동 도서는 어린이자료실, 일반도서는 일반자료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서관은 현재 장애인, 아기맘, 다문화 가구에 한해 무료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다.

문의 : 중앙도서관 ☎ 421-1152

‘제1회 평화창작가요제’ 9월 개최

우리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제1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는 전국 아마추어와 기성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곡 경연대회이다. 합창곡, 동요, 가요, 국악 등 장르 제한없다. 이 가요제 입상곡은 국민 애창곡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음반과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며, 우승팀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문화행사 등 인천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시는 가요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가요제 주관 기관(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해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242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48분 기적의 독서법	김병완	미다스북스	인생역전 책읽기 프로젝트!
(강신주의)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코넬리아 마크	IVP	비교의 거울 너머 서로의 소중함을 찾아서!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	권성희	가디언	부자 공부에 늦은 때란 없다!
썰전	JTBC 썰전 제작팀	사막여우	독한 허들의 전쟁
나무와 숲	남효창	한길사	숲과 나무를 이해하고 식별하기
엄마생각 아이마음	김광호, 김미연	라이온북스	EBS 다큐프라임, 그 후 육아는 달라졌을까?
결혼한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	김진희	이봄	애인, 아내, 엄마딸, 그리고 나의 이야기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김남미	나무의철학	한국어 사용자의 필독서
우는 어른	에쿠니 가오리	소담출판사	'울 수 있는' 어른이 된, 에쿠니 가오리가 전하는 성장일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원현정	하다	나만의 행복 레시피
반나절 주말여행	끈띠고	꿈의지도	반나절이면 충분한 여행지 200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시간... 먼지되어 날다

유동현 | 인천시 | 2014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 먼지처럼 그냥 흩어져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시간과 추억은 늘 아쉽기만 하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의 흘러간 모습을 빼꼼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의 기록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냈다. 이 책에는 시청의 후미진 창고 안에 있던 낡은 앨범에서 건져낸 1960년대부터 70년대의 인천 시정, 지역 행사 등과 관련한 한 이야기와 사진이 담겨있다.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김남미 | 나무의철학 | 2013

우리말 본연의 아름다움과 깊이, 가치에 대해 등한시해왔던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에 대해 친절하게 일깨워준 '친절한 국어 문법'의 저자 김남미 교수의 최신작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어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과 원칙을 풍성하게 전해 준다.

결혼한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

김진희 | 이봄 | 2013

결혼 10년차 주부가 그동안 모아왔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결혼한 여자는 '행복이 참만'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화목한 가정과 동떨어진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상실감을 느껴본 적 있는 '결혼한 여자'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다. 결혼한 이후에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었는지...

(강신주의) 감정수업

강신주 | 민음사 | 2013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이성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철학 전통에서 '감정의 윤리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감정이 중요한 키워드임을 주지시켰다. 자아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자기감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강신주는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분류한 인간의 48개의 감정을 48권의 문학과 어드바이스, 명화와 함께 살펴본다.

300년 고택, 오랜 시간 기와에 누워

글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해마다 봄이 되면 개나리, 산수유가 담장을 넘어 빼꼼히 봄이 왔노라 알려주는 곳이 있다. 원적산 네거리 방향, 즉 가좌동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한국티타늄(현 코스모화학) 쪽으로 가다 보면 중국집 뒤편에 300년 넘은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집은 처음 심재갑(현 인하공전 명예교수)씨의 심대조인 고 심한웅(1652~1715년 6월 15일)씨가 지은 마을 최초의 기와집이다. 증 하선 이조참판 겸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의 벼슬을 지냈던 고 심한웅씨가 1715년도에 지은 집이다. 그리고 1940년에 이르러서 안채를 헐고 개축하게 되었다. 압록강에서 소나무를 가져와 서까래와 기둥으로 썼고, 병자호란 때 영흥도에 임경업 장군 사당으로 있던 곳의 기와를 심재갑씨의 아버지인 고 심운섭씨가 세 척의 배로 실어와 기와를 엮었다. 일제시대에는 보호가 안 돼 자연퇴락이 되어가던 중 기와를 가져와서 지붕으로 엮은 것인데 지금 당장 기와 위로 올라가서 마구 뛰어도 부서질 것 같지 않게 튼튼하다. 개수하는 데 자그마치 3년이 걸렸다고 한다. 개성목수들이 못을 전혀 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엮어서 지은 집이라고 하여 서까래 연결부분을 올려다 보니 과연 그랬다. 개축을 마치고 상량식을 하였는데 기와집으로서는 마을에서 처음 생긴 집이라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여들어 마을잔치를 성대하게 벌였다고 한다.

300년 된 기와집의 우물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었다. 심재갑 님이 청년 나이 18세였던 6·25 전쟁때 가좌동으로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그 당시 기와집에는 20여 가구 이상이 방과 마루, 헛간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고, 피난민들의 식수로서 기와집 우물물은 아주 독특한 역할

을 해냈다.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으랴. 78년도에 상수도 보급이 한창이던 때 수도를 설치했지만, 여태 우물자리는 얇전히 뚜껑이 덮여진 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바로 그 위에 상현달 같은 사철나무가 반들반들한 윤을 내며 서 있으니, 그 당시의 우물가를 별반 어렵지 않게 눈앞에 떠올릴 수가 있다. 새마을사업이 봄을 이룰 때 관에서는 기와집을 헐고 다시 짓자고도 하고 지붕에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보기 좋게 하자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심재갑씨는 모두 만류했다. 집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했을 테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아궁이 4개에 불을 지펴 집을 보존하는 데, 마당 한구석엔 땔감으로 쓰일 나무가 쌓여 있다. 아무리 고대광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냄새, 사람의 발자욱 소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집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300년 된 기와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파끈한 구들방이 되어 본다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맨발로 마루바닥과 안방, 사랑방을 오가며 기를 전해 주고 두 손으로 어루만지는 만큼이나 할까. 서구에 하나뿐인 300년 된 기와집은 마을의 훌륭한 유산이다. 부디, 사람이 오가는 300년 고택으로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늦겨울 태어나는 아침은, 가장 완벽한 자연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것. 그 후에 눈 녹아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우리의 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기형도의 詩 '겨울, 눈썹, 나무, 숲' 中

삶은 겨울을 맨 몸으로 통과하는 일. 골목이 시골하던 도시의 삶도 비어가고 있다. 누가 따뜻한 봄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고 살고 있는 그야말로 '동네사람들'이 봄을 만나야 할 것이다.

경증치매 돌봄 서비스 어르신 모집

인천 광역치매센터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증치매 노인의 재가방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경증치매를 가진 노인의 가정 에 방문하여 기억증진 활동, 말벗서비스, 투약, 개인위생을 지원한다. 노 인 일자리의 경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모집하고, 서비스 신청자 는 인천 광역치매센터에서 모집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60세 이상의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계층(기초노령연금 수혜자)를 우선적 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모집 대상	만 60세 이상의 경증치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기초노령연금 수혜자), 독거노인은 우선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단, 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및 재가 서비스 이용 중인 분은 제외
모집 기간	3월 31일까지
작성 서류	참여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기간 : 월 12회 (매회 3시간), 8개월간
문의 : 472-2027

2014년 계양산자연학교 열어요

계양산자연학교에서는 생태놀이 및 숲교육을 통해 계양산과 자연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 관심있 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시간 : 매월 1회(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계양산 목상동 일대

대상 : 성인반-회원 및 일반 시민 15명

가족반-회원 및 일반 시민 6가족

참가비 : 성인반 2만원(회원), 4만원(비회원) 가족반 3만원(회원),
6만원(비회원)

계좌번호 : 인천녹색연합 / 농협 146-01-111032

주최 : 인천녹색연합 www.greenincheon.org

문의 : 548-6274

‘숲해설가 전문과정’ 제10기 교육생 모집

인천녹색연합은 숲해설, 생태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숲해설가 전 문과정’ 10기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기간 : 4월 15일(화) 개강, 9월 30일(화) 종강 예정

모집인원 : 생태교육자, 숲해설가로 활동할 성인 33명

신청방법 :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ecoedu.ic@gmail.com)

신청기간 : 3월 4일(화)~30일(일)까지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일 : 4월 1일(화)

선발자 교육 등록기간 : 4월 2일(수)~4월 3일(목)

문의 : 548-6274

일자리를 잡(JOB)아라!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희망 여성이 신속하게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 대상 : 취업희망여성

•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상담, 기업체 동행면접 등 적극적 취업알선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상 : 취업희망여성

• 시간 : 주5일, 09:30~13:30

• 내용 :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 수강료 : 무료(전액 국비지원)
※집단상담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진행

직장적응 프로그램(새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인턴)

• 대상 : 취업희망여성(결혼이민여성 포함)

• 인턴기간 : 6개월 이내

•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 4대보험 가입필수, 최저임금이상 급여지급

문의 : 440-6526

국비무료 직업훈련생 모집합니다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비무료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 집하니, 취업에 관심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직업훈련과정

과정명	교육기간	요일 및 시간	교육인원	마감일	면접심사일
온라인소평몰& 이베이 창업	4월1일~ 6월 27일	월~금 13시~17시	24명	3월 25일	3월 27일
단체급식조리사	4월7일~ 7월3일	월~금 14시~18시	24명	3월 25일	3월 31일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교통비지원 : 매월 3만원(출석률 80% 이상)

※ 자부담 5만원, 교육수료 시 전액 환급

문의 : 440-6552, 6526~9

열린공간 의회자료실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자료실은 열린 공간이다. 소설, 공공기관에서 발 간된 보고서, 자료집, 신문, 잡지 등 다양한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어 언제라도 방문해 자료열람이 가능하다.

이용서비스 : 자료열람 및 대출(일반시민은 열람만 가능) / 자료복사 및 프린트 / 국회도서관 원문DB서비스

이용시간 : 월~금(9시~18시), 점심시간(12시~18시)

휴관일 : 토/일, 공휴일

문의 : 440-6374

3월 문화예술 참여하세요

율목도서관은 새봄을 여는 3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1기 정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3월 18일(화)~6월 26일(목)

접수기간 : 3월 4일(화)~16일(일)

운영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및 별관 어린이실 2층

문의 : 770-3800, 3812

프로그램명	내 용	대 상	일 시
책이랑 친구해요	그림책을 읽은 후 책 속의 내용과 관련 활동을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시켜 몸으로 책을 이해하는 독후활동 시간	5~6세 유아	매주 화 5시~6시
유아영어동화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후 관련 동요를 따라 부르고 공작놀이까지 해보는 시간	6~7세 유아	매주 수 4시~5시
책소리랑 놀자	월별 활동 테마를 정하여 각 활동에 맞는 도서를 접목하여 배워보는 시간	1~2학년 초등학생	매주 수 4시~5시
책이랑 놀이랑	책 속의 내용을 미술, 공작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하여 창의력 및 사고력을 높여주는 독후활동 시간	1~2학년 초등학생	매주 목 5시~6시
독딱딱딱 나만의 책 만들기	그림책을 읽고 연상되는 느낌을 나만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북아트 활동 시간	3~6학년 초등학생	매주 화 4시~5시
자녀 독서 논술지도	새로운 독서교육론, 독서법을 알아보며 주제적인 삶에서의 독서의 역할을 찾아보는 시간	성인	매주 금 10시~12시
성인동화구연 지도자양성과정	책을 효과적으로 읽고 전달해주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습 병행 ※ 동아리 및 자원활동가로 구성	성인	매주 수 10시~12시

2014 인천그린뷰티박람회

우리는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뷰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동공단에 밀집되 어 있는 132개의 화장품 제조업체와 6천500여명의 뷰티서비스 산업·스파·휴식 등 관 련 산업을 연결해 웰빙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는는 꽃 피는 춘삼월에 ‘2014인천그린뷰티박람회’와 ‘인천그린뷰티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2014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기간 : 3월 28(금)~30일(일)

장소 : 인천송도컨벤시아 2홀

참여기관 및 인원 : 132개소, 6천여 명

주요내용

경연행사 :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2개 분야 60종목

전시행사 : 화장품(기초, 기능성, 유기농, 한방 색조등), 에스텍틱, 살롱가구등

참여·체험행사 : 네일아트, 염색, 천연화장품 만들기, 아로마테라피 등



제1회 인천광역시장배 그린 뷰티미용경연대회

기간 : 2014년 3월 28(금)~3월 29일(일)

장소 : 인천송도컨벤시아 2홀

참여 예상 : 경연참여자 800명~1천여 명

총관람 3천여 명

행사내용 :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경연대회

컨택센터 전문상담사 모집합니다

인천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 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택센터 전문상담사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모집 기간 : 2월 5일~10월 20일

모집 인원 : 기수별 150명

교육비 : 무료

접수처 : (사)인천컨택센터산업협회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icca.co.kr), 전화 442-2777

모집조건 : 만 45세 이하 미취업여성

청년구직자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주민등록상 인천거주자

컴팩스마트시티, 3월부터 토요 어린이 영화 감상회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토요 어린이 영화 감상회를 무료로 연다.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3월 29일 슈퍼배드 / 전체관람가

4월 26일 슈퍼포에버 / 전체관람가

5월 31일 잠베지아: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전체관람가

문의 : 850-6018

※ 알립니다 | ‘굿모닝인천 2월호’ ‘2014 스포츠 이벤트로 뜨거운 인천’(54P) 기사 내용 중 인천 FC는 인천UTD의 잘못이므로 정정합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세상에 당당히 맞서라!’ 참가자 모집

연수문화원은 2014년 상반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연극을 중심으로 한 활동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수업기간 : 3월 15일(토)~6월 29일(일)

접수기간 : 2월 24일(월)~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대상 : 중학교 1~3학년

참가비 : 무료

접수방법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toyo.arte.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821-6229

어디어디 숨었나?

부평문화사랑방은 간질간질 감각을 깨우고 공공 숨은 내 맘 속 감정을 꺼내보며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신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를 공연한다.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선착순 15명

일시 : 3월 15일~5월 17일, 매주 토요일, 09:30~12:30

장소 : 부개문화사랑방(부개1동 주민센터 3층)

참가비 : 무료

참가신청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문의 : 505-595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열어

우리시는 주5일 수업제 시작에 따라 청소년들이 펼치는 상상, 놀이가 가득한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감상교육 ‘책 읽는 무대 속 이야기’

청소년 대상 문화회관 기획공연 감상과 책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을 통해 음악, 미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연극놀이 프로그램

1기 ‘안녕! 친구들’ : 3월 22일(토)~5월 3일(토) 6차시 수업,
매주 토요일 / 초등1, 4학년

운영장소 : 서구문화회관 무용연습실, 대공연장, 소극장, 야외, 로비 등
모집인원 : 기수별 40명

※ 기수별 패밀리 데이 공연감상 시 가족 전체 공연관람 지원

참가비 : 무료

문의 : 580-1155, www.issi.or.kr/culture

인천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협동조합전국통신소비자
(www.tong.or.kr)

디지털 복지 실현에 힘을 모은다

협동조합전국통신소비자(약칭 통신협)는 인천시 제1호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기 전인 2011년부터 활동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제1호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협은 거대 통신사의 독점과 담합에 맞서 시장안에서 ‘통신 소비자 주권회복’, ‘통신비 인하’ 및 ‘휴대폰 가격인하’의 목표를 소비자의 조직화되고 단결된 힘으로 이루고자 만들어진 소비자 운동단체다. 기존 소비자운동단체와 큰 차이점은 ‘우리’라는 존재의 의미인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통신협은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에 ▽‘통신은 복지다’라는 취지하에 ‘어르신 통신비 내려드리기 운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알뜰폰을 활용해 전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핸드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은 핸드폰 요금면제에 통화요금 35%를 감면하여 부과하며 ▽정보 소외 계층에게 무료로 스마트폰과 통신비를 지원하는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 본격적 추진 ▽서울시와 인천시를 대상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와이파이천국’의 샘플도시로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통신을 넘어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물통신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협의 박동일 이사장은 “더 나아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종진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ICT 최강국의 위상회복’과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Good Morning ASIA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라오스

49

에티켓

명함교환 예절

50

Asiad News

선학체육관 · 하키경기장 개장 외

52

춤 인

인천AG 공식 숙박업소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네팔

58

하나되는 아시아

마음을 나누는 여행 외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L a o P D R , L a o P e o p l e ' s D e m o c r a t i c R e p u b l i c



인도차이나에서 만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조화

순수의 땅 라오스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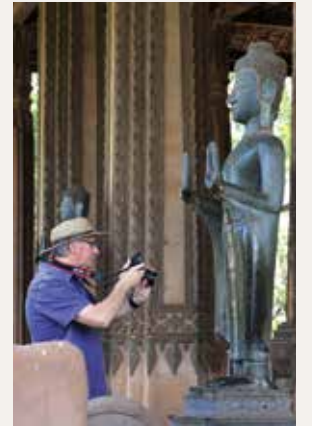
글·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과의 인연

60년대 한국축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가대표 축구스타 홍인웅 감독이 있었다. 라오스 사람들처럼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라오스 사람이 혼동할 정도로 친근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홍 감독은, 10~11세 선수들로 구성된 라오스 유소년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열린 2013 아시아 유소년 축구축제에 참가했다.

1970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당대의 축구대표선수 홍 감독은 축구의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축구의 즐거움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민간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라오스 사람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축구는 꿈이자 희망이다. 그런 희망을 실현하는데 홍 감독은 일조하고 있다. 라오스의 축구선수들이 우리 돈으로 일당 5천원 정도밖에 벌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인 홍 감독은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의 또 다른 주역이다.



라오스는 지난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 4명의 선수만을 파견해 캄보디아(2명), 브루나이(3명)에 이어 가장 적은 선수단을 파견했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즈는 왜 라오스를 꼭 가야할 여행지로 꼽았을까?

2009년 뉴욕타임즈는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라오스를 꼽았다. 도대체 라오스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찬사가 이어지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어렵게 여행 일정을 잡은 건 12월 초순이다. 11월이 라오스의 여행에 가장 적합하다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로 알려져 있어 기대는 자못 컸다.

비엔티엔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은 주로 저녁에 출발해 밤 늦게 라오스에 도착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10분여 만에 도착한 호텔에 여정을 끝낸 것은 늦은 밤이다. 2008년 9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15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져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메콩강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 비엔티엔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한 곳에 조화시켜 놓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느낌이 들지만 한낮에는 긴팔 셔츠 하나만으로 다니기에 충분한 12월의 날씨는 여행자들에게는 최적이다. 한눈에 봐도 도심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라오인들의 첫인상은 매우 친절했다.

현지여행사에 아침 일찍 전화를 해 가이드가 포함된 하루 투어를 신청했다. 아직 성수기의 시작인지라 1시간 만에 운전이 가능한 가이드가 승용차 한 대를 몰고 호텔까지 와 주었다. 다른 여행객들처럼 필자도 라오스의 역사가 묻어있는 화려한 사원들과 도심을 둘러보는 것에서부터 투어를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심심치 않게 유럽인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유명한 관광지는 유럽인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유럽사람들이 라오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우선 가까운 환전소에서 달러를 라오스 돈인 킵으로 바꾸자 주머니가 두둑한 게 자신감이 생긴다. 제일먼저 찾

은 곳은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 만들었다는 빠뚜사이 문이다. 일명 라오스의 개선문으로 불리는 빠뚜사이는 그 규모가 대단하다. 1957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공된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수직 활주로'라는 애칭도 함께 가지고 있다. 빠뚜사이의 옥상에 오르면 비엔티안의 360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

황금색의 텃루앙(Wat Thatluang) 사원은 부처님의 가슴 뼈 사리가 묻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꼭 둘러보고 싶었던 곳이다. 온통 황금색으로 칠해 햇빛에 반사된 사원은 찬란한 빛을 발한다. 많은 사원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보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을 발품을 팔았다.

라오스의 소금마을에서 소래염전을 생각하다

얼마전 다큐멘터리에서 익스트림 잡(극한 직업)을 소개한 내용중에 라오스의 소금마을을 본 기억이 있다. 땅에서 나는 소금물을 증류해 소금을 얻는 곳으로 비엔티엔 도심

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가이드를 재촉해 소금마을로 차를 달렸다.

라오스는 아주 오래 전 바다였던 곳으로 지반이 융기하면서 지하수는 그대로 소금물이 머금고 있는데 이 마을이 바로 끊임없이 소금물을 뿜어내는 곳 중 하나라고 한다. 건기에는 우리의 염전처럼 강한 태양에 소금물을 증류해 소금결정체를 얻지만 문제는 비가 잦은 우기다. 마을 사람들은 우기에도 소금을 얻기 위해 소금물을 엄청난 온도로 증류해 결정체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소금마을은 항상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는다. 귀찮을 정도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것 저것 물어보는데도 웃음으로 답한다. 갑자기 인천의 오래되지 않은 과거였던 소래염전이 생각났다.

야시장 구경은 날 새는 줄 모른다. 여행자 거리에서 인접한 메콩강변을 따라 형성된 야시장은 저녁 5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변도시에서 모여든 라오 원주민들부터 장사치들이 모여 매일 밤 형성되는 야시장에는 손으로 직접 만든 라오스의 전통 직물에서부터 각종 공산품은 물

론, 먹거리까지 다양하다.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이 뒤섞여 이미 국제시장이 되어버린 야시장은 한번 빠지면 수차례 오가야 하는 마력에 빠진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씩 사다보면 이내 양손이 가득하다. 하지만 워낙 물가가 싸지라 큰 돈을 들지 않으면서도 라오스인들의 넉넉한 마음까지 덩으로 사서 기쁨은 배가된다.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루왕프라방'

라오스 제2의 수도인 루왕프라방(실제로 비엔티엔 이전의 수도였다가 1975년부터 바뀌었다.)은 여행객들에게는 수도 비엔티안보다 더욱 매력적인 도시다. 거리는 깨끗하고 시내에는 흙먼지 대신 깔끔한 도로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모여있다. 루왕프라방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사원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에 걸맞게 정갈한 모습의 사원이 곳곳에 있고, 깔끔한 게스트하우스와 노천레스토랑, 심지어 고소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노천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간편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바게트 빵과 신선한 과일주스는 젊은 여행자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으로 와 닿는다.





비엔티엔에서 40분의 짧은 비행기 여행으로 루앙프라방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이다. 미리 예약한 그랜드 루앙프라방 호텔(The Grand Luangprabang Hotel)은 도심에서 10여 분 떨어져있는 곳이지만 과거 왕궁으로 쓰였던 곳을 호텔로 리모델링해서 개방한 곳이라, 마치 왕궁에서 지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서비스도 그에 못지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소는 도시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다. 장기간 여행을 즐기는 유럽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깨끗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기까지하다. 수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은 프랑스풍의 오래된 건물을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내부를 리모델링해 놓았다. 도시를 하루만 둘러보면 왜 이곳이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놓았는지를 금방 알게 된다. 아름답고 조용한 자연 환경과 함께 여행객들이 원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저렴하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즐비하고, 어느 유럽의 레스토랑을 옮겨 놓은 듯한 매력적인 식당들은 루앙프라방의 가치를 증폭시킨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에 흑먼지 날리고, 서걱거리는 소리가 피부에서 들려도 행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짧은 라오스의 여행을 통해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영혼에 대한 동경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라오스를 찾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더해 불교라는 전통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함께 저렴한 여행비용과 친절한 라오사람들 때문에 라오스가 꼭 가봐야 하는 이유였음을 알게하는 여행이었다.

i

라오 맥주(Beer Lao)와 '보펜양' 라오스를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이곳에서 라오 맥주 인기는 우리나라의 걸그룹 못지않다. 그도 그럴것이 더운 날씨에 물을 들이키는 것 보다 시원하면서도 단맛이 도는 맥주가 훨씬 당기기 때문이다. 또 하나 라오스 문화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어로 '괜찮아' 또는 '그럴수도 있지 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펜양'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라오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 나서 좀처럼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보펜양은 때로 사업을 하는 한국사람들 한테는 아주 답답한 말이다. 봉급 다음날이나 주말을 보낸 후 갑자기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무엇이 더 인간적인지 참 고민스럽다.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와 독립 1800년대에 들어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국가를 식민지화하는데 주력했다. 1860년대 캄보디아와 남부 베트남을 식민지화한데 이어 동남아에 대한 식민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드디어 1893년에 베트남 전역과 라오스를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한 프랑스는 실제적으로 라오스의 모든 권력을 프랑스에 귀속시키는 식민지 정책을 추진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일본은 라오스를 프랑스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시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1945년 9월 1일 라오스 남북부를 통합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독립을 선포한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을 현존하는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럽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는데 기여했다.



명함교환 예절



글. 조미령 인천국제교류재단 팀장 그림. 유한석

‘명함’은 업무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명함 교환 시에 구겨지거나 훼손된 명함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실례입니다. 따라서 명함은 호주머니, 지갑, 수첩 등에 넣고 다니기 보다는 명함 지갑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선 자세에서 인사를 한 후에 곧장 명함을 교환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일행인 경우에는 상급자와 교환 후에 하급자와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자신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내밀 때는 상대방을 향하여 두 손으로(상대방이 명함을 읽기 편한 방향으로) 공손히 내밀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이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명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시에 한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명함을 받습니다.



명함을 받은 후 곧장 상대방과 업무 논의를 할 경우, 상대로부터 받은 명함을 수첩 등 주위에 가지런히 놓고 대화 도중 간간히 상대방의 이름 혹은 직함을 부르며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 인천AG 소식



국내 미디어 온라인 등록 접수 시작

오는 9월 개막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내 미디어 온라인등록 접수가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대회 미디어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하고, 신청자 명단에 대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심사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등록이 완료된 인원만 숙박신청이 가능하므로 대회 취재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 관계자는 반드시 등록 마감일인 5월 20일까지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온라인 등록시스템 접속을 위한 임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매체 성격과 유형별로 대한체육회, 조직위 국내보도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잡지협회 등에서 발급한다. 등록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미디어등록 가이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홈페이지(www.incheon2014ag.org) 좌측 상단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복싱,하키경기 열릴 선학체육관 · 하키경기장 개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16개 중 12번째로 선학체육관 · 하키경기장을 지난달 16일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선학체육관 경기종목인 복싱과 하키 관계자 및 선수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장한 선학경기장은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4만2

천447㎡, 연면적 1만9천954.0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관람석은 1만253석(체육관 2천53석, 하키경기장 8천200석)이며, 체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천시는 금년 9월 19일에 개막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에 대해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일정대로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의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신설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 · 단체에서 시설을 참관 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학체육관은 대회 이후에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하키경기장은 하키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핑검사관 초청 간담회 열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8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소속 도핑검사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4 인천AG의 도핑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주요업무 설명과 현재 활동 중인 도핑 관련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조직위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도핑없는 클린대회로 만들기 위해 KADA와 협력해 완벽한 도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학 국제빙상 경기장 12월 준공

우리시 종합건설본부는 연수구 선학경기장 부지에 국제 규모의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을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은 총 사업비 333억 원을 들여 부지 2만1천75㎡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3천188㎡ 규모로 건립된다.

국제 규격에 맞는 아이스링크 2면과 컬링 연습장 2면, 관람석 3천311석, 경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 각종 빙상경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이 경기장은 친환경 건축물이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위한 건축계획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은 오는 9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때 핸드볼 경기장으로 우선 사용된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올림픽위원회 공동 마케팅 협정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가 지난달 21일 공동 마케팅 협정을 체결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공동 마케팅 협약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연수구 웨라톤인천호텔에서 열린 제1차 APC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브자린 회장과 말리니 사무총장을 비롯한 APC 조정위원들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자 열렸다.



미디어촌 숙박비 책정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미디어촌 숙박비가 1박에 80~100달러(약 8만8천~11만원)로 책정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남동구 구월동에 건설 중인 미디어촌에 2천900개 객실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예약을 받는다. 미디어촌은 내년 입주 예정인 신설아파트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2인실(51㎡)과 3인실(59㎡) 등 2종류 객실로 구성된다.

욕실 딸린 객실의 이용료는 1박에 100달러,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객실 이용료는 1박 당 80달러(이상 1인 기준)다. 미디어촌 외 다른 호텔에서 숙박을 원하는 취재진은 대회 협력호텔을 예약하면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지만 미디어촌은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운영된다. 미디어촌에는 500석 규모의 구내식당, 편의점, 세탁실, 의무실 등이 함께 운영된다.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도시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 보급,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 인상에 남는 도시 진 · 출입 경관 개선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의 대표 관광자인 소래철교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서구 다문화 특화가로 개선사업, 강화 선두리 해안권 경관 개선사업 등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시와 관내 7개 대학간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는 디자인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범시민 디자인운동으로 확산시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도시브랜드 개발(CI/B)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AG 입장권 디자인 공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디자인이 지난달 6일 공개됐다. 입장권에는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점박이물범 삼남매(바라메 · 비추온 · 추므로)가 새겨졌다. 경기 입장권에는 친환경 대회를 상징하는 녹색 바탕에 물범 마스코트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겼다.

입장권은 개회식 · 폐회식 · 일반경기 등 총 세 종류로 제작된다. 개회식 · 폐회식의 최고등급 입장권(각각 100만원, 60만원)은 구매자가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카드 목걸이형으로 제작된다. 개 · 폐회식 입장권 가격은 5등급으로 10만~100만원이다. 경기 입장권은 종목 · 좌석등급에 따라 5천~10만원이다.

이달까지 구입하면 정상가의 10%를 할인해 주고 8월까지의 5%의 할인혜택이 있다.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노인 · 학생 · 다문화가족 등 구매대상에 따라 30~70%의 할인혜택도 있다. 한편 대회 금메달 수는 당초 437개에서 439개로 늘어났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458-2812

‘Welcome to Incheon’. 내 집처럼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숙소는 한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공식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를 정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오는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대회를 찾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다가가 인천이라는 두 글자를 각인시킬 것이다. 그 마음과 발걸음이 다시 인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내 집처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인천 호텔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맞아 본부호텔 3개소와 협력호텔 24개소의 공식호텔을 선정하고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본부호텔은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하얏트리젠시 인천, 오라카이송도파크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호텔에는 OCA(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회장,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 회장 및 위원, NOC(국가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이 머무른다. 또 협력호텔은 스텔라 마리나, 하버파크, 송도브릿지, 라마다송도 등으로 인천을 비롯해 인근 도시에 위치하며 OCA 초청인사, NOC 동반인, 심판진, 미디어진 등의 숙소로 운영한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후 3일까지 OCA, IOC, 아시아 45개국 임원 등 OCA 패밀리에게 이들 호텔의 객실과 회의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AG, 손님맞이 준비 끝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인천을 찾는 손님 가운데 숙박인원은 선수 및 임원, OCA 패밀리 등은 1만9천953명, 일반 관람객은 33만1천769명으로 총 35만1천722명이 예상된다. 시는 이들을 위해 총 1천29개 숙박업소에 2만7천291개의 객실을 확보했다. 시는 OCA 패밀리가 투숙하는 공식호텔 외에 선수 및 임원진이 머무는 숙소는 구월동에 있는 구월아시아드 선수촌을 활용하고, 일반 관람객 및 관광객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계속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 관람객을 위한 숙소는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굿스테이(Good-stay)’, ‘더 베스트(The Best) 숙박업소’, 최우수 등업소 중에서 선정했으며, 숙박업소 시설을 개선해 제공하는 ‘아이스테이(I-Stay)’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이들 공식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와 환경 정비,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숙박예약 및 안내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버파크호텔

하얏트리젠시 인천 호텔

| 2014 AG 공식 호텔 |

본부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OCA, IOC, NOC, IF/AF, TD, AGOC, 미디어 & 반도핑, 마케팅 & 방송 숙박
	송도 파크 호텔	인천	
	하얏트리젠시 인천	인천	
협력 호텔	송도 브릿지 호텔	인천	심판 & 후원사 & 미디어 숙박
	홀리데이인 인천호텔	인천	
	스텔라 마리나 호텔	인천	
	하버파크 호텔	인천	
	골든스카이 인터내셔널	인천	
	엠블 호텔 킨텍스	경기도양	
	라마다 송도호텔	인천	
	파라다이스 인천 호텔	인천	
	인천 로얄 호텔	인천	
	센트럴 프라자 호텔	인천	
	폴라리스 호텔	경기부천	
	어반 부띠끄 호텔	경기안양	
	호텔 카리스	인천	
	그랜드 호텔 충주	충주	
	그랜드 힐튼 서울	서울 서대문	
	스탠포드 호텔 서울	서울 마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영등포	
	메이필드 호텔	서울 강서	
	롯데호텔 마포	서울 마포	
	서울올림픽 파크텔	서울 서초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구로	서울 구로	
	센트럴파크 호텔	인천	
	인천 에어포트 호텔	인천	
	더 레지던스 영종	인천	

문의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입장숙박부 458-2682,
시 위생정책과 440-279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협력호텔 가운데 하나로,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인 스텔라마리나 호텔을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인천 기업이 만든, 인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로 주목 받고 있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타운 남동공업단지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는 편의시설 등 비즈니스 호텔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여기에 관광지 소래포구를 품고 있어, 비즈니스 호텔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소래포구 보이는, 인천 최초 비즈니스 호텔

인천 기업이 만든, 인천 최초 비즈니스 호텔

스텔라마리나 호텔은 인천 최초의 ‘레지던스(Residence)형 호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의 레지던스는 취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외국인을 비롯해 장기 출장 중인 비즈니스맨들이 즐겨 찾는다.

더욱이 이 호텔은 인천 토종 건설업체인 ‘유승종합건설(회장 민광옥)’이 시공, 운영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 한다. 1985년 삼우건설로 시작한 유승종합건설은 주택건축 및 건설, 골프장, 리조트, 마리나 시설, 실버타운 조성 등을 망라하는 종합건설사다. 계양구에 본사를 둔 인천 토종기업으로 아파트 브랜드 ‘한내들’을 앞세워 세종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등 전국의 유망 택지지구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유승종합건설이 지난해 10월 남동구 논현동에 개관한 스텔라마리나 호텔은 지상 3층, 지상 27층 규모로 20~27층에 객실 250개를 갖추고 있다. 또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센터, 8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콘퍼런스룸

등의 부대시설을 완비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남동공업단지를 비롯해 안산 시화·반월공단이 바로 곁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단 30분 거리에 있다. 여기에 주변에 소래포구가 있고 저녁이면 서해바다 낙조가 붉게 타올라, 비즈니스 호텔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천 AG 손님 위한, 맞춤형 서비스

스텔라마리나 호텔은 비즈니스 타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는 편의시설 등 비즈니스 호텔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협력호텔로 선정되었다.

스텔라마리나 호텔의 김동근 총지배인은 “우리 호텔의 슬로건은 ‘We are gentleman of Stellar Marina’다. ‘인천 기업이 지은 인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에 걸맞은 명성을 쌓기 위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텔라마리나 호텔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



시아경기대회의 협력호텔로서 자질을 충분히 검증받았으며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호텔은 개관에 앞서, 제 94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16개 팀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며 선수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체전이 끝난 후에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기업체 비즈니스 고객 등을 발 빠르게 유치하며 호텔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을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 주요 참가국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별 맞춤 메뉴얼도 마련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수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문의 : 스텔라마리나 호텔 426-1100, www.stellarmarinahotel.com



스텔라마리나 총지배인 김동근

인천의 품격 높이는, 인천의 호텔리어

스텔라마리나 호텔의 김동근 총지배인은 진정한 ‘인천의 호텔리어’다. 그는 1989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을 시작으로 하버파크, 라마다 호텔을 거쳐 이 호텔의 총지배인을 맡고 있다. 그동안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다가서며 인천의 품격을 높여 왔다. 그는 ‘인천 기업이 만든, 인천 최초 비즈니스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스텔라마리나 호텔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협력호텔로 지정된 데 따른 기대감도 높다.

“고객이 최우선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찾은 손님들이 내 것처럼 편하게 호텔에 머무르며 인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본연의 위치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 이들은, 바로 세계인을 맞을 준비가 된 국제도시 인천의 한 모습이다.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네팔

네팔의 연말은 3월입니다

글. 우메스 버스넷(네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아시아 각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전통·종교 등이 한자리에 모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곳곳의 문화와 풍습,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를 알고 느껴보자.



네팔의 정식 국가 명칭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내륙 국가다. 국토의 총 면적은 14만7천181km²로 남한의 1.5배, 한반도의 3분의2 크기다. 총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2천933만명이다. 수도는 카트만두이며, 인구는 약 220만명이다. 기후는 아열대성 몬순기후가 나타나며, 1월 평균 기온은 11℃, 7월 평균기온은 25℃다. 민족은 아리안족(80%), 티베트·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그 밖에 10여 개의 소수 부족어가 있다. 종교는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등의 분포를 보인다.

무를 합니다.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어른들로부터 ‘띠까’(살, 여그르트, 어비르라고 불리는 빨간색 가루, 등을 섞어서 만든 것)를 이마에 받습니다. 이런 ‘띠까’를 받는 의식은 명절 외에도 축하할 때, 큰 도전을 성공했을 때 등 여러 시점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휴일 중 명절 첫째 날인 ‘찌이때 더사이’는 굉장히 활기차게 보냅니다. 아침 일찍 사원에 가서 모두가 힌두신에게 동물(동물의 피)을 희생양으로 바치기도 하는데, 이때 신에게 바치는 피는 악을 물리친다는 믿음으로 신도들은 이런 행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날 희생되는 동물들은 염소, 물소, 오리, 닭, 비둘기 등입니다. 신에게 올린 동물은 집에 가져와 요리를 해서 온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냅니다. 두 번째 날은 ‘람너어미’ 라고 하는데, 힌두교의 신화 ‘람’의 탄생일을 기념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힌두교 사원에 방문해서 감사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 어느 나라든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활력소가 되는 그런 뜻 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우메스’ 라고 합니다.

지난 1월 한국인과 많은 아시아인들이 큰 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명절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한국 설날에는 서로에게 많은 덕담을 해주고 선물을 나누기도 하며,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용돈을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명절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1월 설날을 지내면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네팔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인 ‘찌이때 더사이(चैते दश)’가 생각났습니다. 네팔은 전 국민의 84%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절이 힌두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찌이때 더사이’는 한국의 설날처럼 네팔식 음력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 ‘찌이때 더사이’는 4월 7일(네팔력으로 2070년 12월 24일)이며, 네팔은 4월 13일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은 한국의 설날과 비슷합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전부 한곳에 모이고 맛난 것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어른들로부터 성공, 건강, 출세 등 미래에 관해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찌이때 더사이’에는 이들의 휴가가 주어지는 데, 네팔의 공공기관, 학교 및 모든 회사 등은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휴



반달 수박 같은 반달 웃음

미얀마로 출장을 가는 중에, 길가에서 수박을 사서 현지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수박을 잘라 주었는데, 아이들의 웃음도 꼭 반달 같습니다. 엄민아 계양구 화산로



마음을 나누는 여행

라오스 왕위왕을 여행하면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는 벨기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아이들을 위해 끼를 발휘하는 이방인과 해맑게 웃는 라오스 아이들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성은주 연수구 해돋이로

이소룡의 부활

앗, 이소룡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마담 투소 밀랍인형박물관에서 스크린에서 만 보던 스타들과 악수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인형이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습니다. 정하나 경기도 광명시



다 같은 부모 마음

일본 다자이후텐만구(大宰府天満宮)는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께 빌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날씨가 추운데도 아이를 공공 싸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나 봅니다. 이현주 서울시 은평구



소소한 풍경도 소중한

홍콩 길거리에 있는 작은 슈퍼 앞. 색깔이 모여 있는 과일이 예뻐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소소한 풍경인데도, 우리가 사는 곳과는 참 다릅니다. 이러한 작은 발견이, 바로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신서율 서울시 노원구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날씨가 너무 더웠지만, 정말 거대한 사원을 보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벽에 새겨진 조각상에 거무스름한 곳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말하길 일본사람들이 연구하려고 탁본을 뒀다는군요. 사실일까요? 맹혜윤 연수구 송도과학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9월이 되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선수단, 관광객들이 인천을 누비게 된다. 아시아인들은 이 기간 동안 인천사람들과 일상의 문화를 함께한다. 길거리에서, 경기장에서, 숙박장소에서 아시아인들을 만나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을 건네보자. 경기로 인해 긴장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활력을, 낯선 이국의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관광객이나 임원진이라면 인천사람들에게 상냥함을 느낄것이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는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 주는 말이다. 아시아 선수, 임원, 관광객들을 만날때 ‘만나서 반갑습니다’에 이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를 덧붙이면 인천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영어
Have a good day!
해브 어 굿 데이



중국어
祝你过的愉快
쭈 니 꾸어더 위콰이



일본어
よい一日(いちにち)をお過ごしください。
오아이데끼떼 우레시이데스



마인어
Semoga hari ini hari yang baik untuk awak
스모가 하리 이니 하리 양 보익 운톡 아왁



베트남어
Chúc anh(남) /chị(여자) một ngày tốt lành
축 (남자) 아잉 / (여자) 지, 몬 응아이 돌 란



이란어
روز خوبی داشته باشید
루제 쿠비 다쉬테 버쉬드



몽골어
өдрийг сайхан өнгөрүүлээрэй
어더릭 사이항 언겔울레레



타이어
วันมีความสุข
완니미콰쑉



러시아어
Желаю Вам провести приятное время
렐라우 밤 프로베스쨌 뿌리야뜨노예 브레마



**싱할리어
(스리랑카)**
iqN ojila
수마 다와삭



**우리두어
(파키스탄)**
ایک اچھے دن کی امید کی جانی ہے
에이그 앳체 던 기 옴이드 기자떠 해



펭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밖은 섭씨 40도, 안은 영하 10도.
열사(熱砂)의 나라 아이스링크에서
히잡을 쓴 여인들이 쌍쌍 달립니다.
산유국은 석유를 펑펑 때서
얼음을 쾅쾅 얼립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빙하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년 후 쯤이면
중동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